

만들었다. 그러나 이를 어겼다가더라도 처벌조항 자체가 없다. 결국 1990년 이후 대만에는 실제 정치범, 양심수가 없다.

ㄴ) 독일의 예

53년까지 공산당 금지법이 있었으나 60년에 폐지

서독에서도 우리의 국가보안법과 유사한 법률은 없었다. 일부 사람들은 서독의 형법과 결사법이 국가보안법과 같은 역할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서독은 나찌와 같은 전체주의 체제의 재현을 막고자 위 법률을 통해 좌우를 막론하고 전체주의 정당이나 정치적 결사체의 증폭을 제한한 것일 뿐이다.

또한 그 적용도 매우 제한적이고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을 뿐 아니라 1968년 이후에는 적용되지 아니하였다. 더구나 통일 후에는 동독 공산당의 후신이 민사당(PSD)도 아무런 제한 없이 활동하고 있다.

OECD 가입국중에서 사회당을 금지하는 나라는 전무

어쩌다 페루등의 남미에서 있을 수는 있으나 그 외의 나라에서는 없다고

남아공의 경우, 넬슨만델라 집권 이전시기에도 사회주의당은 존재하고 있었다고

5. 전담반 구조

교무과장(교회감, 부소장급)



공작반장(교회관, 과장급)



교회사 (4급감)



교회보 (4급을)



간수

6. 옥중 사망자

옥자자 명단

보안감호소

1. 공재용 76년 (위암)
2. 김용철 76년 (고혈압)
3. 하야청 76년 (자살, 일본인)
4. 백갑기 77년 (후두암)
5. 김경익 77년 (위암)
6. 안준호 77년 (고혈압)
7. 김홍직 77년 (혈압 두 번 터짐)
8. 이훈동 78년 (결석증, 위장병)
9. 송순희 79년

년 (가슴앓이)

10. 변형만 80년 7월 11일 (강제급식) - 기도파열 출혈사망 교도소 공동묘지 매장)
11. 김용성 80년 7월 11일
12. 김규찬 80년 (대장염, 단식 후유증)

13. 최점수 81년 (간경화)
 14. 공인두 87년 (뇌종양)
 15. 문갑수 87년
 16. 이상을 89년 (간질, 뇌종양)
- 이상 감호소에서 16명

피감호자수 155명 중 비전향 52명 (89년 현재 생존자)

광주 교도소 (1973 - 1976)

1. 김규호 1976
2. 박운영 1974
3. 신춘복 1975.11
4. 이동근 1974
5. 이영호 1973
6. 장한영 1976
7. 현명원 1974

대구 교도소 (1973-1976)

1. 기세일 1975. 4. 26
2. 김영호 1973
3. 윤중하 1974
4. 정영훈 1976.6
5. 손윤규 1976

대전 교도소 (1973-1976)

1. 김태원 1974
2. 배학수 1974
3. 최석기 1974. 4
4. 박용서 1974. 6

전주 교도소 (1973. 10-1978 전주는 78년에 더 극심했음)

1. 김태선 1973. 10
2. 탁해섭 1978. 10

이상 교도소에서 18명

8. 교도소별 사상전향
고문실태

교도소별 사상전향 고문실태

1. 광주교도소

1) 1973년

73년 10월 : 비전향 장기수 64명

73~74년 5월 39명, 60%전향

교무과장-김철형

교회관-한덕윤, 문승호, 김무용

교회사-박종호, 정일봉, 이규연, 김영수, 신학운, 김봉윤, 최한주 등

재소자-정무종(살인강도 10년 징역으로 1년 추가형), 원삼실(특수절도)

전향공로 인정, 전과가 많은 4-5명 이례적으로 반년 정도의 가출옥 혜택

이규연, 정일봉 가장 악질, 정무종, 원삼실 이용하여 살인적 폭력 감행

피해자-변치수(사망당시 45세), 임병호, 이봉노, 김동연, 안신옥(김동연과 안신옥은 반신불수)

12월 5일 서준식 자살미수

2) 1975년

가해자 : 교무과 전담반 김홍렬, 문성호(실적평가 광주 1위, 진급)

피해자 : 김명국, 권오봉, 김(권?)낙기

신춘복(정신이상, 자살 75.11.22-전국민에게 보내는 호소문, 검사에게 드리는 탄원서를 침대밑에 두고 숨졌으나 교도소 당국과 검사가 가져갔다고),

최한석(1976.5.21 사망, 고혈압, 의무과 치료를 교무과에서 통제)

김규호(1976.6 또는 7월 자살, 위장병, 처방된 약을 요구하다가 구타당하고 오는 도중 '이선생(이인모씨) 나, 더 이상 못합니다.'라는 말을 남기고 자살)

재소자: 전호찬, 이건중, 항시 사동 청소부로 배치 수시 폭행.

2. 청주감호소

1978. 11. 22 개칭, 피보안감호자 110명(대전에서 이감)

피해자 : 박순철, 김현지, 문갑수, 김권식(80년 가을 감호과장 오기수로부터 구타, 박종호 교회사, 최종대 교사)

80년 서적 권수 제한 문제, 7.7 서준식씨와 교도소 충돌

(황용갑씨) 고문- 의무과장 오성호

변형만 김용성 씨 사망

<1989년 2월 2일 청주보안감호소 35인의 수감자 호소문 제출>

:1월 30일부터 35인 무기한 단식 투쟁

<80년 7월 11일 청주보안감호소 살인고문 진상 보고>

1988. 1. 14, 17 양일 서준식, 김종건, 한선화, 최남규, (김중중), (김용규) 면담 증언.

80년 7월 8일경 책권수 시비

이유범 주임, 오기수(감호과장) (황용갑씨) 구타

7월 8일부터 서준식 단식, 9일 65명 가량 단식 돌입

7월 11일 강제 급식

입회자 - 오기수(감호과장), 김영숙(서무과장), 오성호(의무과장), 전영선(의무과 부장)

(김용규), 최점수, 문갑수, 박순철, 변형만, 김용성 등 13-14명 강제급식, 구타 고문.

변형만, 김용성 사망

김용성(당시 66세) 목격자: 최남규, (김중종), 금재성. 아들 김경재씨 및 가족들에게 급히 연락

변형만(당시 47세) 목격자 : (이인모), 김병인 및 당시 지하실의 13-14명

-의무과장 오성호 파면 처분 2달 뒤 새로 채용, 감호소 근무 복귀

최점수, 김규창 선생 후유증으로 사망

3. 대전 교도소

소장 : 이정세

부소장 ; 배응찬

교무과장 : 김치연

전담과장 : 나석규, 박완

보안과 동원, 담당 : 김진섭, 이동호 (87'퇴직), 오영선, 김복술 (교회사로 특채되었으나 87년 청송으로 발령받자 자진 사표. 현 교회집사), 최만부

재소자 : 이돈용 (일명 이정웅 88년 현재 공주교도소 복역중), 조석환, 고영재 (마산) 김기웅 (일명 목포내기), 갈가리 (본명? 청송감호소). 이들의 지도는 전담 교회사가. 청소부 배치 미전향 정치범들 구타, 고문하도록.

전담 교회사: 신학운 (국민대 출신), 장원범 (중정에서 수평이동, 군대위 출신, 경인지역 교도소(?) 교무과장), 양준식 (광주 교도소 전담반 근무)

사례

(안영기) : 조석환등 재소자 3명이 폭행. 강당에서 전향의사 강제 발표 "대통령 특명을 htod명을 꺾어버려도 좋으니 미전향자는 없도록 하라"

최석기 사망 74.4.4 : 조석환 등 재소자 3명 폭행 타살.

/목격자 : 의무과 간병 출력 모씨

강제 전향자 : 김세문, 박문철, 정영만, 남일만

징벌방 (0.75평) 수용자

(이공순), 유00, (홍경선), 김원철, 탁해섭 (사망)

안화섭- 위장병 악화로 치료요구. 전향해야 치료해준다고.

자살자-이용훈, 황필구씨

박종호씨 - 동상으로 한 발 절단

4. 전주 교도소

78년 4월경(?) 광주 악질 감철현 부임-마영주, 육성욱: 통방사실 시인 고문

탁해섭 (당시 52세)-78년 10월 13일-20일. 고문 기절시킨 상태에서 전향서에 지문 날인. 전

향서 취소 단식 투쟁벌이다 2,3인에게 고문당한후 자살.

5. 대구 교도소

73년 여름. 변영균 (교무과장) 비롯 8명의 전향공작 전담반 구성. 이중 장원범 (중정출신 교회관)은 강패를 거느리고.

피해자: 박관수, 김용운, 배모, 000, 000

5-6일간 바늘로 은뎀을 찔러, 7명 자살

9. 사상통제의 역사

사상통제의 역사

<일제하의 사상통제>

(1) 치안유지법 제정 이전

▶ 1910. 8. 22 조선 총독부 설치

▶ 헌병 경찰제 (의병 토벌, 첩보수집/ 범죄즉결처분권, 강제집행권, 민사소송조정권 등 87개 권한)

▶ 1912. 3. 25 부령 40호 '경찰범 처벌 규칙'- 면회강청, 단체가입 강청, 붙은 연설, 붙은문서, 도화 시가의 게시, 반포, 낭독, 방음행위, 유언비어 및 허보 유포에 대한 처벌 규정(1912년-52000건, 1918년-142000건)

▶ 1910년 병합 직전 집회취체법 - 정치집회 금지, 단체 해산

▶ 3.1 운동 이후

1919. 4. 15 조선총독부 제령 제7호 「정치에 관한 범죄체벌의 건」

- 정치변혁을 목적으로 다수공동하여 안녕 질서를 방해하거나 하려고 한 자의 처벌

(2) 치안유지법 제정(1925)

1920년 '회사령' 철폐 이후 자본주의 발전 → 노동자 계급 성장 → 사회주의 사상주체 등장
→ 조선노동총동맹 결성(1924. 4.19) → 조선공산당 결성(1925. 4. 17) : 민족운동 처벌 중심의 제령 7호에서 → 사회주의 사상에 대처할 수 있는 법 필요성 대두.

↳ 1925. 4. 21 법률 제 46호 치안유지법 공포, 제정

1925. 5. 28 칙령 175호 「치안유지법을 조선·대만 및 사할린에 시행하는 건」

5. 12 조선에서 실행

▶ 치안유지법

제1조 - 국체의 변혁 또는 사유재산의 부인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의 조직 및 가입 처벌
(=현행 국가보안법 '반국가단체·이적단체 구성·가입죄/제3조, 제7조 3항/ 반국가·이적 개념의 뿌리)

⇒ 반국가 단체의 구성·가입죄를 범죄 구성 요건의 결과의 발생과 동시에 범죄도 완성하는 즉시법으로 해석. 구체적 행위로 나아가기 이전 단계인 구성·가입 자체를 처벌하는 현 대법원의 판결과 일맥 상통

제2조 - 3,4,5항: 동조자층에 대한 처벌은 현 국가보안법에서 계승

(3) 치안유지법 개정(1928,1941),

조선사상범 보호 관찰령(1936),

조선사상범예방구금령(1941)

1929년 세계 공황/ 조선-원산총파업: 노·농 운동 전투적 전개

⇒ 일본 - 군국주의화, 파쇼화 '파쇼군벌정치' 수립

1928년 여름 - 독립수비대, 고등계 경찰(사상탄압 전문), 사상검사 재판소마다 배치

:요시찰인에 대한 사생활 감시, 경찰서장에게 보고

-3.15 사건으로 공산주의자 박멸, 사상국난

▶1928. 6. 29 치안유지법 개정 - 반제운동세력에 사형 부과

▶1931. 3. 27 사범차관통칙 제270호에 의해 '사상전향제도 정식 도입'

:동조자층까지 처벌 가능, 목적수행행위 처벌 규정 ◀국보법상 목적수행죄(4조) 계승

▶1936. 5월 공포 11월 시행 '사상범보호관찰법'

1936. 12월 제령으로 조선에 시행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

-보호관찰 결정은 법원이 아닌 보호관찰심사회에서

1928년에서 35년까지 치안유지법 사건 검거자 1만 6천여명(보호관찰대상 6천 4백명)

1933년에서 38년 사이 8천명

경성, 함흥, 청진, 평양, 신의주, 대구, 광주에 보호관찰소 개설

▶1941 대화숙 - 보호관찰소의 외곽 단체, 보호사와 침식, 군대식 기율로 황민훈련

(=유신 전향공작전담 교회사)

일제하의 사상전향제도

①사회주의자, 민족주의자 중 전향하지 않은 자를 '사상범'이라 한다. 이들은 보호관찰의 대상이 된다.

②개전 상태에 따라 완전전향(모든 혁명사상을 버린 자), 준전향(혁명사상의 방기가 모호한 자), 비전향(혁명사상을 버리지 않은 자)로 나눈다.

③전향의 기준은 "국체변혁 사상, 혁명 사상을 방기했는가 여부. 전향의 최종단계는 일본 정신을 체득하여 실천공행하기에 이르는 것" (1933년 사범성형사국장 통칙 「치안유지법 위반 수형자에 대한 조사방법의 건」)

④철저한 황국신민이 되지 않는다면 형기 만료후에도 보호 관찰소 감시 대상

(1938년 7월에서 1940년 4월 사이 접수자 12,604명 회부자 972명)

⇒현행 전향제도와 보안관찰법 연원

▶태평양 전쟁 시기

1942. 8 비전향 사상범에 대한 예방 구금. 일본 정부 각의에 의해 결정

1941. 2 조선사상범 예방 구금령. 예방구금소 : 경성서대문구치소

1941. 3. 8 법률 54호 치안유지법 개정

-2~4조 신설, 결사지원결사, 준비결사, 이르지 않은 단체·집단 처벌. '사상처벌법'

-사상범에 대한 공소심 생략, 인신구속 무한정 가능, 변호사 선임권리 제한

-3장 39조~65조 : 예방 구금

↳사회안전법으로 계승 →보안관찰법

<해방후 사상통제와 법체제>

(1)미군정기, 국가보안법 제정

- 45. 11. 2 군정법령 제21호. 보안법, 신문지법 존속. 일제탄압법률 계승.

좌익탄압, 우익보호

46. 2. 23 군정법령 제55호-정당등록제 도입

46. 5. 4 군정법령 제72호(군정위반에 대한 범죄) - 미군, 미국인에 대한 무례 행위까지 처벌

⇒국보법 이전 정치사상과 활동 통제 도구

▶국가보안법 제정 1948. 12. 1 -내란 행위 자체보다 내란 유사의 목적을 가진 결사·집단의 구성과 가입 자체를 처벌. (제정거부, 국회 프락치 사건)

▶1949. 6. 4 국민보도연맹결성

(2) 반공법 제정 (1961)

1961. 7.3 민주당 정권의 '반공임시특별법안' 현실화 시킨 반공법 제정 공포

⇒인혁당 사건(1964.8), 통혁당 사건(1968.8), 인혁당 재건위원회(74.4), 남민전(79.10) 파괴 및 사형에 적용.

⇒사상공포증, 레드 콤플렉스 창출

(3) 유신, 사회안전법 제정(1975)

71. 10. 15 위수령 발동

12. 6 국가비상상태 선언

12. 27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발동

72. 7.2 남북공동성명

74 긴급조치 발동

75. 5. 13 긴급조치 제9호 발동

사회안전법, 민방위기본법, 방위세법, 교육관계법개정안 등의 4대전시입법 날치기 통과.

▶사회안전법

: 4.19 이후 무기형에서 20년형으로 감형된 좌익수들이 대량으로 만기출소하게 되자, 이들을 통제하기 위해 제정. 국가보안법, 반공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상범에게 전향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없을 때까지 무한정 구금

: 보안처분에는? 보안감호, 주거제한, 보호관찰

그러나...

①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

②기간은 2년이나 갱신 회수 무제한

③면제를 위해서는 반공정신이 확립되어 있을 것(제7조 1항)

④면제의 처분권자-법무부장관 : 법원에 의한 형의 선고 기회 박탈

⑤조선사상범예방구금령과 매우 흡사

*서준식

-재일동포모국간첩단 사건(1971.4)으로 체포, 구속

-78. 5. 27 만기에도 불구하고, 전향거부로 재판당시 없던 이 법의 소급적용되어 1988년에야 석방.

(4)제5공화국, 반공법<국가보안법으로 흡수 통합

1980. 10. 27 제5공화국 출범

국회해산 → 국가보위입법회의(국가보위비대위 개편) : 반공법 폐지, 국가보안법에 흡수 통합(1980. 12. 31)

같은 날, 국가안전기획부법 : 과거 중정의 권한, 특권 고스란히 안기부에 부여.

(5) 6공화국 출범

1988. 12. 28 체제 수호 선언

1989. 4. 4. 공안합동수사본부 설치 - 안기부, 보안사, 치안본부대공분실, 공안검찰 총집결
(발족 한달만에 구속자 350명, 불구속 입건 215명, 출판물 11,471권 압수, 주요 활동가 86명 수배)

▶1992. 한국사회주의 노동당 창단준비위 사건

-결성직후 자체 해서, 합법정당활동전화, 그러나 결사와 가입 자체를 처벌하고 있으므로 구속·기소 : 국가보안법의 사상처벌법적 성격

-주대환씨 등 구속된 간부 18명 지하전위정당노선 포기, 폭력혁명노선포기, PT독재노선포기 탄원서 안기부에 제출. 준전향적 성격

-이전의 조직사건과는 달리 집행유예

▶1992. 5. 국가보안법 일부 개정

-'반국가' 단체' 내용 중 자본주의 국가 내의 공산당, 사회주의 국가와 그 지도당 삭제

-'반국가 단체'에 지휘통솔체제를 갖출 것을 명시

-이적 행위 처벌에 '목적' 요구

▶89. 12. 4 야당(평민당), 민주질서보호법안 제출 (국보법 대체법안으로)

▶1988 사회안전법 폐지

-빨치산 세대 장기수 석방

⇒보안관찰법 제정 / 만기출소 좌익수에 대한 보안관찰처분

☞1992년 4월 22일 현재 비전향 장기수 44명

70세 이상 : 9명, 60대 : 21명, 50대 : 8명, 그 이하 9명

10. 출소 비전향 장기수

약력

■출소 비전향 장기수 약력

• 작은 글씨는 복송 혹은 사망

1. 강동근(1916.11.19)

본적

주소 군생활 이동 때문에 일정주소 없음

경력사항 1916.11.19 경남 하동 출생

1934 중국으로 건너감

1945 해방 전 중국에서 활동하다 귀국

1950. 6 인민군으로 참전

팔치산 활동당시 국군토벌대의 총격으로 왼팔 절단함

1951. 1 팔치산으로 투쟁 중 체포,

무기(23년) + 감호 14년 = 37년 복역

1989.10.11 가석방

2000 현재 부산시 북구 화명동 정화양로원에서 거주

2. 고광인(1935. 1. 5)

본적 전북 고창군 신림면 가평리 604번지

주소

경력사항 1956. 7.12 체포

1977. 4.19 만기출소와 동시에 감호소 재수감

1089. 9. 6 출소

3. 고성화(1916.8.20)

본적

주소

경력사항 1916. 8. 20 제주도에서 출생

일제시대 일본의 나니와상업학교 졸업, 해방전부터 사회주의 운동에 참여

1945. 8 해방 후 초등학교 교원생활

1948. 4 제주 4.3항쟁에 참가. 체포되어 2년형 선고

1950. 4 만기 출옥하여 부산으로 이주

1950년대~1960년대 외항선원 생활, 정기적으로 일본을 왕래.

1973. 3.16 세칭 '제주 우도 간첩단 사건'으로 구속. 무기형 선고

1993. 3. 6 형집행 정지로 석방(20년 복역)

4. 금재성(1924. 2.25)

본적 충남 대전시 삼성동 361번지

주소

경력사항 1938. 대전 제1 공립보통학교 졸업

1939. 부모와 함께 원산으로 거주이전

1945. 청년사업

1947. 결혼 아들2

1948. 평양인민 경제대학 입학

1950. 중앙당 소환, 최고사령부 직속군관 교도대 교관

1952. 정전과 동시에 전역하고 인민경제대학 복교

1955. 주월 전시 전문공업학교 교편

1956. 당중앙에 소환,교육을 받고 6월 남파

1957. 7. 대전에서 체포, 15년 언도

1972. 8.24 대전서 석방

1975. 8. 9 보안감호소

1989. 8. 8 석방

1998. 8.17 14시 18분 별세(서울 보라매병원)

경기도 파주 보광사 안치

*가족관계 : 부인-이명숙(73세)

자녀-금활(금춘국)(50세) / 금 충열(46세)

5. 김동기(32. 10.19)

본적

주소

경력사항 1932. 10. 19 함경남도 단천사에서 노동자의 아들로 출생 어린시절은 함경북도 성진시(현재의 김책시)에서 생활. 해방후 성진제강소에서 노동자로 일함

1950 고등학교 재학시 인민군 지원입대 후 참전. 서울, 추풍령, 낙동강, 동부전선 전투에 참가. 19세에 화선 입당.

인민군 제대 후 함흥 노동학원(대학예과과정), 평양상과대학(1회) 졸업

1950 말 상업성에서 과장으로 근무

1966 경남 장양군 출신 인민군 제대자인 정씨와 정치공작원으로 남파 후 정씨 고모부의 신고로 포위되어 총격전 끝에 허리 관통상을 입고 체포.

1967. 12. 10 구속.(1966년 5월 18일 구속되었다는 자료도 있음) 무기형을 받음.

1970년대 전담반 강제전향 시 명동광패 김성기에게 구타를 당하다 싸워서 광패의 항복을 받고 단식에 돌입. 교무과장으로 부터 다시는 구타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음

1976 손윤규 선생이 전향규탄단식으로 옥사한 것을 계기로 대구 비전향자 전체단식투쟁. 당시 교무과장 강철형으로부터 '강제전향시키지 않는다' '구타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아낸 사건. 대구교도소 비전향복역수들이 최초로 벌인 집단적 투쟁

1999. 2. 25 광주교도소에서 형 집행정지로 출소(33년 복역)

2000 현재 전남 광주시 북구 두암동에 위치한 '통일의 집'에 거주.

6. 김석형(74. 4.13)

본적 평북 박천군 덕안면 남오동 850번지

주소

경력사항 1914. 평양시 보통강구역 12동 아파트 3층 출생(11남매중 5남 막내로 출생)

본적지 보통학교 졸업

중국 장춘(신경)에서 신경상무학교 졸업

8.15이후 당학교 졸업

일제시 박천 수리조합 공수 8년

1945. 8.15후 본적지 공산당 면당 부책임비서

본적지 공산당 군단무 노동부장

내무기관 복무

1950. 전후 61년까지 조선 국제여행사 안내소 소장

1961. 5.16 서울에 음.

기소장에는 국보위반, 사기결혼.

1962. 2. 5 사형선고 무기판결

1991.12.24 형집행정지로 석방

* 아내 : 김옥희(78)

자녀 : 4남 2녀

7. 김선명(25. 2.25)

본적

주소 현재 낙성대 만남의 집 거주

경력사항 1925.2.25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대심리 7남매 중 둘째로 출생

1945.8.15 영동포 특별자위대 조직 활동

1951.10.15 새벽 4시경 인민군 31사 정찰대원 소속으로 철원지구 정찰도 중 un군에게 붙잡힘

1952.8.15 15년형 확정

1953.4. 대구형무소로 이감

1953.7.25 국방경비법 33조(간첩죄)가 추가, 사형선고

1954.2.27 무기감형

1995.8.15 출소 (43년 10개월 수감생활)

8. 김영달(34)

본적 경북 영덕군 영덕면 화계동

주소 전북 부안군 보안면 오동리 만화동 776-46

경력사항 3살때 부모따라 중국 하얼빈에 가서 중학 중퇴

1951. 17세때 중국 인민 지원군

1951.12. 인민군으로 편입. 전쟁이 끝남

1956.11 제1집단군에 소환

1957. 9.29 공작원으로 활동

1957.10. 1 체포됨. 고등군법서 15년

1973. 3.13 만기출소

1973. 7.23 보안감호소 입소

1989.10 출소

현재 부안농장에서 근무

9. 김익진(30.7.13)

본적

주소

경력사항 1930. 7. 13 (호적은 1932년생) 경북 영덕군 남정면 우곡리에서 빈농의 아들로 출생. 고향에서 어머니, 여동생과 생활

1945. 8 해방 후 고향에서 농사생활

1948 18세의 나이로 입산. 이른바 구황치산으로 대구 팔공산 경북도당본부 소속으로 전쟁 후 전선이 팔공산에 접근할 때까지 산에 있다가 유격대인 남하선발대와 상봉 후 동해지구 연락차 이동.

1950 인민군 후퇴시 3지대에 배속되어 입산활동 중 제2군단 최현부대 정찰대와 만나 그들과 함께 후퇴하다 재귀월에 걸려 낙오됨.

1952. 5 황해도 금강학원에 입학

대남서부연락소에 배치, 전선을 넘나드는 공작을 하던 중 팔공산 당시의 상부가 소환. 평양에 있는 만경대 혁명유자녀학원에 입학. (유격대 활동 업적 인정에 의해 입학)

만경대 학원 졸업 후 북청 과수고등전문학교에 전학, 졸업 후 함경남도 신상군 인민위원회 농업기술부 과수지도원으로 활동.

1965 함흥공산대학 수료.

당의 소환을 받고 대남연락부 소속 공작원 해상 수송 안내원 업무에 종사.

1969 일행 14명을 실은 배의 안내원으로 상륙. 전투과정 중에 배는 침몰하고 총격전으로 큰 부상을 입고 혼자서 체포됨.

수도경비사령부 헌병대 지하실에서 4개월간 최조중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오른쪽 다리를 제대로 쓸 수 없음.

1969. 6. 10 구속. 무기형 선고

1973~1976년경 고문과 구타에 의한 전향강요 거부

1993 대전교도소 의무과장이 직접 사면을 건의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

신장결석과 협심증으로 장기치료 필요. 오른쪽 다리 충상을 비롯하여 몸 여러 군데 충상 자국이 남아 있음.

1999. 2. 25 형 집행정지로 출옥. 30년 복역

2000. 1 현재 갈현1동 '갈현동 제2 만남의 집'에서 우용각, 장병락, 박왕규, 양정호 선생 님 등 다섯분의 장기수 선생님과 거주.

복에 처(63세)와 1남 2녀(40세, 36세, 32세)가 있다.

10. 김인서(25. .)

본적 평남 덕천군 덕화면 불음리

주소 광주시 동구 산수3동 508-19 빛고을 탕재원

경력사항 1940. 평남 맹산군 옥천소학교 졸업-농사

1943. 9. 서선 중앙철도주식회사 기차역에 역수로 취직

1946. 6. 맹산군 봉인면 연장 조직책

1947. 3. 맹산군 옥천면 민청위원장

1947.12.19 맹산군 부위원장

1948. 4.15 맹산군 민청위원장

1949. 2. 1 중앙당학교 입학

1950. 5. 평안도 민청 정치부 교양부 부부장

1950.10.15 장흥지구 사령부로 입산-참모

1951. 3. 5 장흥지구 정치부 정치교양 과장
 1951. 6.21 전남도당 강사
 1951.12.31 군경합동대공세때 지리산에서 체포
 1952. 4. 5 고등군법회의에서 20년 선고, 대전형무소에 수감
 1969.10. 4 대구교도소에서 출소-노동일
 1970. 대구영신상회 직원
 1971. 2. 반공법으로 재구속. 2년형 선고
 1973. 3. 7 출소 뒤 다시 영신상회에서 달걀 장사
 1976. 1.16 전향자와 만나 이야기 한 일로 반공법으로 재구속.5년형 받음
 1981. 2.24 만기출소와 동시에 청주 보안감호소에 수감
 1989.10.12 사회안전법 폐지로 출소
 광주쟁쟁보호소 생활-체석장일 등
 1994년 이후 광주 빛고을 방재원에 있으며, 서점 점원으로 일함
 1996. 7.29 뇌출혈로 쓰러져 왼쪽 전신마비에 중풍
 2000. 2 기독교병원에서 광주통일의 집으로 거쳐 이동
 2000. 4. 다시 광주 기독교병원으로 옮겨 현재 입원 치료중
 * 부모, 부인, 2녀(지금 복녘에 여동생이 살고 있음)
 여동생 김봉서(65세)
 큰 딸 김화심(50) 평양 외국어대 교수
 작은딸 김정심(46) 평양 유치원장

11. 김영만(24. 9.25)

본적 전남 구례군 마산면 사도리 559
 주소
 경력사항 1932. 구례군 청천 초등학교 4년제 입학
 1936. 구례군 토지면 토지공립보통학교 입학
 1938. 졸업과 동시에 한문서당에 다님
 1939. 구례 제일 인쇄소 문선공
 순천 순흥농장 급사
 한남 풍산군 청남면 압록강 수전개발에서 막노동
 1940. 3 일본으로 밀항
 탄광노동자로 있다가 18세때 굴속 노동자가 됨(2년간)
 1942. 잡부 선창부두 노동자등으로 전전
 1944. 일본에서 돌아옴
 1945. 전남 구례에서 치안대 활동과 민청사업을 함
 1945.10 여순사건때 체포(경기 사고로 위장)
 1949. 4. 불명예 제대 집에서 농사와 노동으로 소일
 1950. 6.25말에 구례방위군 조직. 나중에 모두 의용군으로 돌아섬
 1950. 9. 군산 동원부 입대
 1950. 9.28 후퇴때 지리산 입산
 1952. 1. 체포. 무기
 1960. 4.19때 15년 감형
 1967. 석방과 동시에 농사
 1976. 9.27 사회안전법으로 감호소에 다시 투옥
 1989.10. 5 석방. 그후 노동(목공소 등)으로 생활.
 2000. 3. 현재 서울 월계2동에서 거주

12. 김영태(30. 7.23)

본적 충북 괴산군 동부리 234
 출생지 평북 정주군 옥천면 장경리
 주소
 경력사항 1930. 7.23 평북 정주군 옥천면 상경리 출생
 1950. 고향에 가족들을 남겨두고 인민군 입대. 낙동강전투에서 후퇴 중 병을 앓아 부대에서 낙오.지리산에 입산, 이현상 부대에서 활동.
 1952. 2. 탄환이 왼쪽 눈을 관통. 체포.남원포로수용소에 수감.
 육군고등군법회의에서 사형선고. 그 뒤 20년형으로 감형.
 1971. 대전교도소 만기출소

1972. 결혼. 아들1
 1975. 사회안전법으로 청주보안감호소 수감
 1986. (감호소에서) 이혼
 1989.10. 사회안전법 폐지로 출감. 청주 양로원에 머뭇.
 1994. 6 이후 광주 빛고을 방재원에서 약탕제일.
 *부모, 부인 김금옥, 아들 김용재

13. 김용규(23. 6.22)

본적 전남 광주시 원산동 94-4번지
 주소 서울시
 경력사항 해방후 중학 5년 중퇴
 1953. 체포 무기징역, 4.19후 20년형으로 감형
 1974. 8.10 만기출소
 1976. 7. 보안감호소
 1989. 9. 5 석방
 2000. 현재 고향으로 휴식중

14. 김종중(26. 8.12)

본적 경북 안동군 임화면 청천리 277
 주소
 경력사항 1946. 3. 대구 사범대 졸업
 1948. 대구사대 중퇴(5.10 선거시학생운동으로 퇴학.지명수배)
 1948.12 체포
 1949. 3. 불기소 석방
 1950. 월북
 1952. 법률학교졸. 평남경찰서 검사(박헌영, 이승업공판에 참석)
 1956. 검사로 재직
 1961. 7. 공작원으로 내려왔다가 8월체포.15년 연도
 1977. 3.11 출소와 동시에 보안감호소 수감
 1989.10.12 석방
 *아내 : 장 성실(64)
 자녀 : 김태정(44) / 김태영(42) / 김태익(40) / 김태선(36)

15. 김은환(30.7.12)

본적 경기도 광주군 대왕면 수서리
 주소
 경력사항 1930.7.12 경기도 광주군 대왕면 수서리에서 태어남
 1949. 덕수상업학교 졸업
 1950. 6. 조선로동당 경기도 광주군당 근무
 1950. 9. 조선인민군 복무(약 7년간)
 1960. 평양 김책 공업대학 전기공학부 졸업
 1960. 조선예술학교 촬영소 기술처 근무
 1969. 대남 평화통일을 위한 정치공작에 동원되어 활동 중 체포.
 무기징역
 1999. 형 집행정지로 석방
 2000. 현재 과천 '한백의 집'에서 공동체 생활

16. 김인수(23. 5.27)

본적 대구
 주소
 경력사항 1962. 안영기선생님과 군사분계선을 넘어왔으나 곧바로 체포됨. 정단지 관통상으로 실신상태에서 7개월동안 중앙정보부 특무대 강원도경 미군정보부대에서 조사받음.
 1963. 3. 육군본부보통군법회의의 검찰보승처. 불법장입 불법무기휴대 등의 혐의로 기소. 무기형을 선고받음.
 1964. 3.30 대법원에서 무기형 확정
 1998. 3.13 석방

17. 김종호(13. 8.2)

본적 경북 김천
주소 평양시 서구역 모란봉구역 경기장 부근
경력사항 1913.8.2 경북 김천 출생
김천고보 졸업, 공용조합 이사로 재직 중 청진에서 해방을 맞아 경리사업에 종사, 소비조합중앙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재직
1960 남파
1961.5.25 체포
1991.5.25 석방
현재 대구 인동레깅에서 거주
건강상태-중풍후유증,시력감퇴,위장질환

18. 김우택(20. 1.8)

본적 경북 안동
주소 황해도 봉산
경력사항 1920.1.8 안동 출생
한국전쟁 전 지방선거에서 당선 경력, 한국전쟁 시기 입북
1951 남파
1952.11.14 체포. 인민군임에도 불구하고 비정규군으로 분류되어 포로교환에서 제외. 무기
1991. 2.25 41년만에 출소
현 거주지-부산 반송2동
건강상태-간염, 신경통

19. 김영승(35. 8. 7)

본적 전남 영광군 묘량면 삼학리 235
주소
경력사항 1950. 중학교 재학중 6.25 발발
9.28 후퇴시 입산. 빨치산
1954. 체포. 고등법원에서 무기
1960. 20년으로 감형
1974. 반공법으로 2년
1976. 청주 보안감호소로 수용
1989. 9. 5 석방. 현재 노동

20. 김현순(29.11.30)

본적
주소 서울시 은평구 진관내동 440-127
경력사항 4차례 구속. 18년.

21. 김해섭(28. 5.16)

본적 전라북도 정읍군 덕천면 하학리 525번지
주소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1127-29번지
경력사항 1937. 덕천초등학교 입학
1943. 3. 상고졸업
1943~46. 서점근무
1945~48. 학원수업

1948~50. 9. 전북 정읍군 이평초교 근무
1950.10~52. 2. 입산하여 빨치산 활동 중 체포
1970. 2. 1 만기출소
1975. 7~89. 8.9 사회안전법 석방
현재 고령으로 휴식중
*아들 : 김달성

22. 기세문(34.1.20)

원적
본적 전남 광산군(현 광주시) 인곡면 인곡리 성안마을
주소 광주시 북구 매곡동 200-3
경력사항 1934.1.20 출생
1947 인곡초등학교 졸업
1950 광주사범병설 중학교 졸업
1953 광주사범학교 졸업
1953~1956 8 교직 생활
1956. 8 '조국평화통일동지회' 조직사건으로 구속(2년형)
1958 출소
1960 농업에 종사하다 4.19 이후 사회대중당 등의 혁신정당에서 청년-통일운동
1961 민족자주통일협의회 대의원
1968 통일혁명당 호남지구 재건 운동
1971 구속(1심 사형구형, 대법에서 15년형 확정)
1986 만기출소
출소 후 민자통 활동, 자연건강교실 단식원 운영, <세계의 단식건강법>(세훈사) 출간
1995 고 윤기남 선생 장례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 중 구속
2000. 5 말 <자연의학 자연건강법>(에디터 출판사) 출간
현재 광주 거주. 처와 1남 1녀가 있다.

23. 강용주(62.6.18)

본적
주소
경력사항 1962. 6.18 6남 4녀 중 넷째 아들로 태어남
1980 광주동신고(양동화 선생님의 고등학교 후배) 재학 중 광주민중항쟁에 참여
1985. 2 전남대학교 의예과 제적. 전남대 민주화투쟁위 결성. 각 중 시위 주도
1985. 9. 9 소위 '구미유학생간첩단' 사건으로 구속
국가보안법 위반(국가기밀누설죄)으로 기소. 무기형 선고
1996 옥중서신집 『깊은 물에 큰 배 뜬다』(도서출판 진원, 1996) 출간
1999. 2. 25 특별사면으로 석방(형 집행 정지)

24. 김광길(23. 3.26)

본적 광주시 북구 임동 78번지
주소
경력사항 1932. 광주 숭일 소학교 입학
1938. 졸업

1941. 광주우체국에서 근무
 1944. 결혼
 1946. 광주 체신노조 활동으로 해고
 1947. 광주 토목광구 사무소 재입
 1948. 화순광업소 현장서기
 1950. 화순 동북면당책. 군당간부 지도원
 1951.12.30 산에서 군당 지도원으로 있다가 체포됨
 1952. 4. 3 20년 징역. 대전에서 복역
 (4.19때 2년 3개월 감형)
 1969. 9.28 출소와 동시에 광주 동북에서 농사
 1976. 9.25 감호처분으로 청주 감호소로
 1991. 4 별세

25. 권양섭(17. . .)

본적 경북 봉화군

주소

경력사항 1917. 경북 봉화군 출생
 1935. 1년 6개월 정도 감옥생활
 (1930년 전북 교원노조 사건에 연루된 사촌형이 중국으로 갔다가 35년 국내로 들어오면서 함께 감옥생활을 함)
 1938. 청진에서 2년 반정도 트럭운전
 1942. 결혼 후 만주활동
 1946.11. 남조선 노동당 합당대회 대의원 참가. 평양으로 감
 1948. 남북 제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 참가. 체포. 4년형 대구형무소 수감
 1953. 출감
 1972. 체포. 경상도 통혁당 사건 '일명 유위화 사건' 첫째 낙기, 둘째 재기, 여동생, 제수씨, 셋째 문기, 넷째 충기 함께 연행. 옥살이
 1993. 3. 6 형집행정지로 석방
 1997. 3.18 80세의 나이로 별세
 @ 가족관계 - 미망인 조낙귀씨, 큰 며느리 이옥순씨,
 큰 아들 권낙기 손녀딸 다정아. 다인아

26. 김명수(22. 5. 1)

본적 함남 함흥시 사포구 당보리

주소 대전시 유성구 구암1동 649-4

경력사항 1938. 당보리 운남보통학교 졸업

1939. 함남 비료공장노동

1945.11. 1 함남 용성기계공장 입사.

6천원 프레스제작과 광신기계를 주로 제작

1951. 6. 5 도당학교 졸업(3개월)

함남시당 책임지도원 배치

1952. 6. 함남 제약공장 운창과장

1952.12. 부천으로 공장이전

1954. 7. 함남시당 위원장에게 발탁, 승환.

용성기계공장에서 근무

1957. 7.28 남쪽으로 오다가 체포, 무기징역

1993. 3. 6 출소

* 아내 : 이순자(68)

자녀 : 만백(54) / 만석(51) / 춘복(40)

27. 김도한(15. . .)

본적

주소

경력사항 1915 경기도 양주군 광적면 출생

1922~1937 서울 교동공립보통학교, 제일고보, 보성전문 수학

1937~1945. 8 경성부청, 조선교역(동아무역) 근무

1945. 8. 15~1946. 2 조선교역관리위원장

1946. 2~1948. 8 무역상 서울상사 경영(조선무역경제연구소주관)

1948. 9~1950. 6 외자관리원(외자총국) 감사관

1950. 7~9 외자총국 자치위원장

1950. 9 후퇴, 연백군 인민위원회, 평양시 통계처, 대성산목장, 삼신탄광, 인민경제대학, 로동성 근무

1957~60. 4 남파, 마곡사 승려생활

1960. 4 체포. 28년간 수감생활

1987.12 .24 가출옥

1991. 6 『옥중일일』 출간

28. 김창원(34.10.27)

본적 경기도 평택

주소

경력사항 1934.10.27 서울 흑석동 출생. 4형제 중 장남.

일제시대 중앙대 경상상공 중학교(현 중대부고) 입학

1950 16살 중학교 4학년 때 母 사망.

영등포구 임시 민청 선전부 활동 중 나이를 18세로 속여 의용군 입대.

1950.7.20 인민군 정식 입대. 남진하는 부대에 따라 안동까지 감. 소속부대 전선사령부 직속연대로 편입. 3사단 근무.

1953 정전 무렵 동부전선 전투 참가

1957 하사관 제대

제대 후 평양고등석탄공업전문학교 기계과 졸업. 중공업 위원회 석탄관리국 배치. 전기석탄공업성 상급지도원 부서과장으로 아오지

탄광,광산, 기계공장 등 지도사업

1969 남파. 6월 12일 구속. 사형선고

전향공작시 85년 대전에서 이용훈 선생과 황필구 선생 죽음을 목격

1978.4.5 사상전향공작 3단계-기죽을 통한 설득 방법으로 아버지와 동생을 접견한 후 아버지는 충격으로 사망.

1998 출소

현재 대구 민들레집 거주.

복에 아내 김복화(65세), 아들 성식(43),성남(37), 딸 성희(37),성숙(32)이 있음

노래를 잘하고 악보를 채보할 수 있는 음악적 능력을 갖춘

29. 류락진(28.8.26)

본적 전북 남원

주소 전남 광주시 북구 매곡동

경력사항 1928. 8. 26 전북 남원군 이백면 과립리 출생

일본 시미네 사범학교 졸업, 국민대학교 수학

1950 조선노동당 전북 남원군당 선전부 지구당 활동

후퇴시기 입산 빨치산 활동

1953 조치령 위반(국가보안법)으로 5년 복역

혁신정당 사건으로 4개월 수감, 집행유예 출소 후 건축기사로 현장 종사

1966 중고교 교사 근무 중, 월북

1975 통혁당 재건사건으로 사형 선고(무기 감형)

1992 구국전위사건으로 8년 선고

1999.8.15 출옥

1999 출옥 후 현재 서예작품 활동
현재 전남 광주시 북구 매곡동에 거주

30. 리공순(34.12.3)

본적

주소

경력사항 1934.12. 3 충남 서산군 정미면 전의리의 빈농가정에서 태어남. 충남 예산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농사를 지음
1950. 8 17세의 나이로 의용군에 지원, 인민군 후퇴시기에 인민군에 입대
1957 인민군 제대. 함흥철도국에서 당 일꾼으로 일함.
1964 함흥 공산대학 1기 졸업
1967. 12 정치공작원으로 남파. 5일 만에 총상을 입고 체포.
1970년대 광주교도소에서 전담반 강제전향시 구타와 오진 감옥생활로 인한 후유증으로 전신마비 증상과 정역생활 기간 동안 신경
통, 관절염 증세로 고통.
1999. 2. 25 형 집행정지로 출옥 (32년 복역)
2000년 현재 전남 광주시 북구 두암동에 위치한 '통일의 집'에 거주.

31. 리경찬(35.10.15)

본적

주소

경력사항 1935.10.15 경기도 장흥군 율고리에서 빈농의 아들로 태어남.
1954 고급중학 졸업후 인민군에 입대하여 군사분계선의 민정경찰로 복무
1965. 3 대남공작 안내원(선원)으로 충북 청주 출신의 공작원과 함께 내려왔으나 공작대 상자의 동생 신고로 체포.
1965. 8. 12 구속. 무기형을 선고받음
1970년대 광주전향공작반의 고문을 통한 전향 중용 거부
1994년부터 감옥에서 그림을 그림.(87년 6월 민주화항쟁 이후 붓글씨러본가 의술공부, 그림공부 같은 것 을 조금씩 할 수 있게 되었
다고 함)
1999. 2. 25 형 집행정지로 출옥. 34년 복역
2000년 현재 전남 광주시 북구 두암동에 위치한 '통일의 집'에 거주.
복에 처(63세)와 두 딸(39세, 36세)이 있다.

32. 류운형(24.12.26)

원적 함남 이원군 차호면 참흥리

본적 대전시 목동 1-19

주소 강원도 철원 (휴전선 이남)

경력사항 1944. 춘천사범학교 졸업과 동시에 교원
1946. 강원도 철원 양지 인민학교 교원
1948. 철원중학교 교원, 철원군당 선전사업
1950. 전쟁시 전남도당 정치공작대로 파견. 선전사업에 종사
1954. 8.25 체포. 무기
1961. 20년 감형
1974. 대전서 석방. 양계장, 포장마차 등 노동
1976. 6.30 성동경찰서에서 감호소로
1989.10.12 석방. 수원갱생보호소에서 이전(복역기간-34년)
가족-부모(부-유영근, 모-이평), 여동생-유귀녀, 유옥순
현 거주지-서울 낙성대 '만남의 집'
건강상태-뇌졸중,반신불편,허리통증

33. 류태현(. . .)

본적

주소

경력사항 수원 고농, 동경제대 졸업, 농사연구원과 금강산 개발사업에 종사
1950년대 휴전 후 녹화사업소장으로 공작 중 남파

안내자의 신고로 체포
1978. 5월 중순 80세의 나이로 가출옥 후 사망

34. 로천도(14. . .)

본적

주소

경력사항 1914 경북 의성 출생 카톨릭 집안에서 성장, ,
팔로군 출신
일제시기 민족해방전투 참가
해방 후 연안에서 귀국, 당 학습강사로 재직 중 남파
1982. 7월초 암으로 옥중 사망

35. 류연철(12. . .)

본적

주소 평양시 서구 동성동

경력사항 1912 경북 안동에서 태어남
1950 한국전쟁 당시 빨치산 활동
1955.10. 9 체포, 20년+ 감호 7년 = 27년 복역
1983. 5 석방
2000 현재 부산시 부민동에 거주
가족관계 : 부인-김봉희/ 아들-상인, 상철, 상락 딸-영자, 상화

36. 류한욱(11. 5.24)

본적 평안북도 철산반도

주소 평안북도 신의주시 미력동

경력사항 1911.5.24 평안북도 철산반도 출생
5살때 모 사망, 父 - 북간도로 이주하면서 사촌집에서 생활. 14살 때 父 - 새 장가
1926 소학교 2학년 입학. 안동 신흥학원 수학. 덕명학원 4학년 전학 입학
1927 결혼
덕명학원 졸업 후 삼무중학교 입학 . 약질 일본인 교사 물아내기 위한 동맹파업 참가. 만주로 도피. 프론트투 생활 4-5년(라이프급
챔피언)
1947 검사 생활(평안북도 검찰소)
1956 남파, 체포. 사형연도, 2심에서 무기 확정
1967 고문과 구타로 인한 전향공작으로 고혈압(오른쪽 손발이 모두 마비) 증세 - 독방생활
1991.2.25 36년만에 석방
고향에 아내와 두 딸, 한 명의 아들이 있음(어머니-김영군/ 부인-차계숙/ 딸-동진, 동옥/ 아들-동원)
음성 꽃동네에서 생활하시다 현재 낙성대 우리탕제원 거주

37. 박왕규(29. 4.10)

본적 충북 청원군 부용면 부강리

주소

경력사항 1929. 4.10 충북 청원군 부용면 부강리 출생
1947. 청주상고 졸업(8회)이후 서울로 올라와 당숙이 경영하는 상점에서 근무
1950. 7. 의용군 지원.
1957. 인민군 제대 후 군도매소(유통기관) 재정 책임자
1963. 평양상업대학 졸업 후 국영기업소 재정책임자로 근무
1967. 남파. 2개월 후 체포 1심에서 15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 무기형 선고됨.
32년간 복역.
*복에는 처(66)와 2남(35,33), 2녀(40,38)가 있음

38. 박봉현(19. . .)

본적

주소

경력사항 1919 전북 순창 출생
1958 일본 대정대학 졸업, 중학교 교장 재직 중 남파
1960. 6 고창에서 체포
비전향으로 가석방
현재 전주에서 거주

39. 배동준(24. 3.27)

본적

주소 경북 봉화군 석평리 524
경력사항 1957. 7. 체포.15년 연도
1972. 9.21 만기 석방
1976.10.16 보안감호소 입소
1989. 7.26 출소

40. 박용서(. . .)

본적

주소 경기도 포천 출생
1948 서울시경에 체포.
1973. 9 옥중에서 바늘로 온몸을 찌르는 전향공작 고문으로 인해 사망

41. 박기만(24. 3.27)

본적

주소
경력사항 1923 수원 출생
1952 남파
중학교 교원, 하체불구
교도소에서 조웅순씨와 함께 불구자로 생활할 때 양희철 선생이 돌본 것으로 알려짐
1990 출소

43. 박문재(23. 9.14)

본적

주소 평양시 선교리 82번지
경력사항 1923. 9.14 경기도 개성 출생
1950. 6 한국전 당시 서부전선에서 인민군 정치장교로 참전
1953. 2. 4 빨치산으로 투쟁 중 계룡산 일대에서 체포
전쟁포로였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1965. 4. 19당시 감형으로 약 12년 정도 복역, 출소 후 결혼
1977 중학교 은사였던 일본거주 재일동포와 서신왕래 한 것을 빌미로 간첩으로 몰려 무기형 선고
1993 비전향장기수류 대전교도소 출소 (총 28년 복역)
2000 현재 부산시 괴정 거주
가족관계 : 노동신문 주필이었던 박필양씨의 양아들, 북에 노모가 계시나 생사 확인 안됨

44. 박정평(26.1.27)

본적

주소
경력사항 1926.1.27 전북 부안군 상서면 감교리 출생
1947. 3 정읍농고 졸업
1947~1952 빨치산 및 지하활동
1952~1960 형무소 복역 및 석방
1960~현재 노동 종사. 당뇨병, 고혈압으로 투병 중

45. 신현철(17. 6.22)

본적 서울시 도봉구 미아동 228-59
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1동 610-10
경력사항 1953. 10년 징역
1962. 석방
1975. 8. 9 감호조치 구속
1988.11.25 출소
*아내 : 이내역
자녀 : 신범순(23)아들 / 신순재(20)딸

46. 신인수(18. 4. 7)

본적 경북 청도군 화양면 사상리 174
주소 대구직할시 상리동 대구 향학 양로원.
경력사항 1924. 청도보통학교 졸업(야구 육상선수)
1925. 단목월북.
청진기계공업전문학교 졸업
1946. 청진인민위원회 간부.
김해시 인민위원장
1957. 평양 내각 사무국 참사 역임
1958. 1차 남파-부산
2차 남파-남파도중 영덕군(포항)부근에서 무인포스타에 나와서 체포.상대방 선전연락원이 체포된 후 밀고.
1심 10년. 2심 10년. 3심 15년
1973. 대구에서 만기출소
1976. 건축회사 근무
1989.10 보안감호소 구금
*아내 : 고목자(북)
자녀 : 아들-수량(50)/학원(46)/철수 (함북 선전시 신평동 15번지)
동서 : 조기전(당시 평남중화군 내무국 근무)

47. 송상준(27. 5.18)

본적 경남

주소
경력사항 1942. 3. 일본복구주 계천 초등학교 졸업
철도모지 차장급 하급수
1945. 귀국 이후 농사
1950. 7. 입산
1954. 4. 1 부산 구덕산에서 체포
1심에서 사형, 2심에서 무기
1960. 20년 감형. 미결 흉산으로
1976. 만기와 동시에 보안감호소 수용.
1989. 9. 5 석방. 현재 부산에서 노동

48. 신인영(29.12.6)

본적 전북 부안군
주소 경기도 성남시
경력사항 부안출생
청주상업학교 재학

1967. 3. 9 부모를 만나보려고 내려와서 만나려고 해상에서 보트가 좌초되어 조수에 대기하던 중 해상에서 체포됨
전북부안경찰서, 전북도경, 미군CIA영동포수용소에서 4개월간 조사. 허위자백을 강요받고 67년 대통령 선거방해, 동생복귀등으로
진술
1967. 7 국보 3조1항 반공법으로 기소
1967. 9. 정읍지원에서 무기형을 받아 광주고등법원에서 항소하였으나 기각됨
1968. 2. 대법원에서 무기형 확정
1998. 3.13 석방

49. 서준식 (48. 5.25)

본적
주소

경력사항 1948. 5. 25 일본 교토 출생
1967 고등학교 졸업 후 한국으로 유학
1968 서울대학교 법학과 입학
1970 형, 서승과 함께 방북
1971. 4. 20 서승과 함께 보안사령부에 체포
1972. 2. 14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7년 판결
1978. 5. 27 징역 7년 만기와 동시에 사회안전법에 의한 보호감호 처분 결정
1980. 7. 9 교도 당국의 처우에 항의하며 18일 동안 단식 투쟁
1987. 3. 3 사회안전법 철폐와 석방을 요구하며 51일 동안 단식 투쟁
1987. 3. 6 고등법원에 〈나의 주장〉 제출
1988. 5. 25 석방. 사회안전법 폐지 운동 전개
1989-1991 민가협 공동 의장
1991.6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 관련 구속
1991-1993 강기훈 공대위 집행위원장
1993. 3 인권운동사랑방 창립
1993-1995 전국연합 인권위원장
1996-1997 인권영화제 집행위원장
1997 인권영화제에서 제주도 4.3 항쟁을 다룬 〈레드헌트〉 상영으로 구속
1997 KNCC 인권상 수상
1998 씨네21 영화상 대상 수상
현재 인권운동사랑방 대표

50. 송계채(33.10.30)

본적 전북 정읍군 소성면 금계리 대동 64번지
주소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2동 326-2호
경력사항 1930.10.30 태어남
1948 군당 경찰 및 내포타로 활동
1950 정읍 농업중학교 5학년 중퇴
1950. 8. 정읍 야영훈련소 중대장

1950. 9월말에 정읍 내장산으로 입산
1951. 전북 남부지도부 당근위대 지도책
1952. 2. 4. 체포
1952. 7. 군법회의에서 사형선고, 광주형무소로 입감
1953. 20년으로 감형, 대전형무소로 이감
1968. 전주교도소로 이감
1970. 1. 17. 출소
현재 민중당제원 근무

51. 손성오(30. 1.15)

본적 전북 부안군 신내면 마포리
주소

경력사항 1930.1.15 전북 부안군 신내면 마포리 소작농의 2남3녀 중 막내로 태어남
1948. 공부할 목적으로 서울 상경
1950. 6.25때 의용군으로 입대.
마산전투 참전하여 부상, 동부전선 전투 참가
1955. 김일성 종합대학 역사학부 입학
졸업 후 함경본공공업대학 교원으로 역사학 강의. 김일성 군사 정치대학 두 차례 수료
1980. 전남 해남을 통해 남파
1987.10. 무기형 선고
1999.12.31 사면출소.
봉천동 '만남의 집'에서 생활
@ 가족관계 - 33세에 장가 - 3남 1녀
누님(손성례), 큰 형님

52. 신광수(29. 6.27)

본적
주소

경력사항 1929. 6.27 일본 시즈오카 출생.5남2녀 중 막내
1945.10. 부산항으로 단신 귀국.
포항중학교 입학
1948. 2.7 구국 투쟁 관련 수배.
서울상경.보성중학교 편입
1950. 6.25 발발후 의용군 지원입대
중전 후 루마니아 부카레스트 공과대학 유학(기계공학 전공)
귀국 후 조선과학원 연구원 및 당비서
1965. 이후 일본 파견. 대외연락부 소속 국제정보원으로 20년간 활동
1985. 서울에서 안기부에 체포됨. 사형선고
1988.12. 21 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 김성만, 양동화(98년 8월 출소)와 함께 무기징역 감형
1999.12. 31 출소 .
봉천동 '만남의 집'에서 생활
@ 가족관계 - 북에 부인과 1남 3녀

53. 서옥렬(28.1.17)

본적
주소

경력사항 1928. 1. 17 전남 신안군 팔금면(옛 무안군 안좌면) 팔금도 출생
1950. 6 고려대 경제학과 3년 중퇴
1950. 8 의용군 입대
1958. 12 김일성종합대 정치경제학부 졸업

1959. 1 원산교원대학 정치경제학부 교원
1961. 8 공작원으로 남파
1961. 9 체포, 군사재판과 민간재판에서 무기확정
1990. 9 대전교도소에서 가석방
2000년 현재 전남 광주에서 거주

54. 손순남(28. . .)

본적
주소
경력사항 1928 평안남도 속천 출생
인민군 소대장(국기훈장 1급·2급)
1958 남파
1970 폐병·고혈압으로 옥중 사망

55. 석용화(24. . .)

본적 경상남도 양산
주소
경력사항 1946 좌익활동으로 1차 투옥, 6개월 실형
1949 국가보안법으로 1년 수감생활.
1950.3 출소
1950.7 양산 신불산(가지산)으로 입산, 당시 경상도당동부지구당(이후 경남동해남부지구당으로 개편)
1952.2 토벌로 울산 지술령에서 체포, 광주국군포로수용소에서 수감. 1심군사재판에서 사형 선고, 2심에서 무기로 확정. 대전교도소 이감
4.19 직후 20년으로 감형
1968.4 대구교도소로 이감
1972.3 출소
현재 주차관리원으로 노동

56. 이성근(31. 9.17)

본적
주소 서울시 관악구 신림9동 241-61
경력사항 1931.9.17 전북 순창군 쌍치면 금성리 출생
1950.6 정읍 농림 중학교 5년 중퇴
1950.9 전북도당 특공대 문화부 소대장
1952.12.28 체포. 15년 구형
1967.2.1 대전형무소 출소
현재 민중의 기본권 보장과 양심수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57. 이세균(21.12.18)

본적 전북 장수군 장수읍
주소
경력사항 1921.12.18 전북 장수군 장수읍 출생
1940 고창중학교 졸업
1945 전매청 근무(약 4년간)
1949 청주시 당 소속
1950.4.6 27 육군 형무소 수감
1950. 9 부상
1951.3 체포, 무기징역 선고
1966 출옥(1960년에 15년으로 감형)

1975 사회안전법으로 감호처분
1989 사회안전법 폐지로 석방
1989-현재 양로원, 탕제원, 봉천동에서 김석형 선생과 같이 살다가 독립항

58. 이구영(20.3.24)

본적
주소
경력사항 1920. 3. 24 (양력 5월 12일) 충북 제천의 독립운동가 집안에서 출생
1925 6세 때 한문 공부시작
1935 결혼
1938 영창학교 입학. 3년만에 졸업
1942 황한의학원 입학
1943 합천독서회사건으로 1년간 수형생활
1948 동양의학전문학교에서 강사생활
해방공간에서 비합법활동
1950. 9 월북
1958. 7 정치공작원으로 남파
1958. 9 부산에서 체포됨
1980. 5 가석방으로 출소(22년 복역)
1984 이문학회 창설
1998 개마서원에서 『노촌 이구영선생의 살아온 이야기 ; 산정에 매를 매고』 (심지연 글, 개마서원, 1998) 펴냄

59 이 중(11. 8. 9)

본적 충북 영동군 영동읍 봉천리
주소
경력사항 1929. 이전에는 한문을 습득하다 서울고학당 재학
1930. 농촌 계몽운동
1931. 만실산 사건으로 동대문에서 10일간 예비구속
1932~37. 영동청년동맹중심 농촌계몽운동
1935. 이학당 사건으로 영동에서 40일간 구속
1941. 결혼. 아들2
1945~47. 조선공산당 영동군당 선전책
남로당 영동군 당부책
1947. 10.3사건(단독정부 반대투쟁)으로 청주감옥에서 1년 6개월 징역. 집행유예 3년.
1949. 중앙당 간부 부월 선책.
서대문 형무소에서 1심 4년에 상고중 해방.
1950. 원유 한강 도하책(중성1)
1951~53. 평양수도사업소 배치.
금강학원 입학. 남하
1959~69. 간첩미수로 체포. 청주,대전, 대구감옥 10년 복역
1957. 결혼. 딸1
1975. 7. 보안감호소 입소
1988. 8.25 출소

60. 이두균(27. 4. 2)

본적 충주시 직동 596

주소

경력사항 1941. 충주 교현소학교 졸업

충주세우서 급사

세무서 서기

1948. 4. 9 충주중학 서무과 서기

1950. 전쟁시 충주읍 민청위원장

1950. 9. 후퇴때 북상 중앙당육격지도처 동부연락소

1951. 중앙당소환과 동시에 9월하순경 대남공작원으로 파견

1952. 4. 충주에서 체포.

506 특무대에서 취조. 20년 징역

다시 재소했으나 서울계엄 인사부에서도 20년 징역

1961. 4.19 2년4개월 감형

1969. 말경 출소 고물장사 칼창제작업 종사

1975. 7.24 보안 감호소

1989. 8. 7 석방

1991.11 현재, 민중탕재원

61. 이경구(30. 3. 4)

본적 충남 공주

주소

경력사항 중학교 때부터 서울거주

고등학교때 민주학생동맹 활동

1950. 의용군 지원

1951. 평양에서 당연락부 사업

1952. 8. 남파

원주에서 체포. 국방경비법 국가보안법으로 20년 언도. 15년 추가징역

1989. 6. 출소

1995. 현재 월간 '말'지 영업부 근무

62. 이종환(22. 1.15)

본적 경기도 부평

주소

경력사항 1945. 소학교 졸업. 배관 노동

1950. 해방후 인민위원회 남로당 사업. 후퇴때 북으로

1951. 7. 남파. 연천과 철원에서 미군부대 앞을 지나다 수색 체포.

1952. 1. 군사재판에서 구형20년, 실형15년 언도. 국방경비법32조(이적행위) 발치산.

1952. 8. 15년 확정후 마포교도소에서 복역.

1953. 2. 국방경비법 33조 간첩적응으로 대구이감. 다시재판.

1953. 6. 사형구형

1954. 3. 1 무기언도

*말-이정림

누이동생-이옥분

생활-박동기 생존(의용군참전, 포로수용소에서 석방)

63. 임병호(15. 9.7)

본적 충남 보령

주소 평양시 중구

경력사항 1959.9.27 체포. 무기

1991.12.24 석방(복역기간-32년)

현 거주지- 서울 '혜명양로원'

건강상태-심장(부정맥),천기증,위장질환

64. 이재룡(44.10.2)

본적

주소

경력사항 1944.10. 2 강원도 양양군 선암면 농고리의 빈농가에서 3남으로 출생

1950 한국전쟁 당시 큰 형은 인민군에 복무. 피난 외중에 부모 사망 7~8세에 고아가 됨

중학교 졸업 후 어부 일을 함

1967 어선의 취사원인 화장으로 승선한 배가 풍랑으로 인한 군사분계선 월선으로 북에 나포(총 9명)

나포 선원 송환시 병으로 잔류, 그 뒤로 북에 체류

1967~1969 2년간 공산대학에서 공부. 그 기간동안에 인민군 복무를 마치고 평남 속청군 협동농장 세포위원장인 큰 형과 상봉.

1970. 6 2인조 공작조로 남파. 20일 후 대구에서 체포 1970년 6월 19일 구속. 무기형 선고

대전교도소에서의 강제전향공작시 구타로 인한 일시 전향. 북한에 대한 발언으로 고발.반공법 위반죄로 추가 기소되어 10년 추가형

을 받음.

다시 비전향수로 특별사 생활

1999. 2. 25 형 집행정지로 출옥. 29년 복역

2000.4 현재 전남 광주시 북구 두암동에 위치한 '통일의 집'에 거주.

이혼.

65. 임주홍(1900. .)

본적

주소

경력사항 1900 전남 광산 출생

광주고보 졸업 후 노동운동

1920년대 전남방직 파업투쟁 조직사건으로 3년 투옥, 도일 후 노동운동을 하다가 귀국 후 피신, 광산노동자로 생활

1945.8. 15 초대 광주시당책

1946 입북

한국전쟁 이후 남파, 체포

1946. 5. 1 반미테오사건으로 입건. 3년형 복역 중 만기 2달을 남겨놓고 전출, 김정제 사건 조직 관련자로 15년 구형

1965. 5 옥중 사망

66. 임방규(32. 6.16)

본적 전북 부안 동진면 당산리(당아리)

주소

경력사항 1946. 부안군 부안소학교 졸업

1946. 9. 고창중학교 입학

1947. 민주학생동맹 가입

1948. 전주 공업고등학교 전학

1950. 중퇴. 전쟁시 의용군 입대

1950.10. 후퇴시 임실 성수산으로 입산.

외팔이 부대(진인원 약5백명) 정치부 중대장.

1952. 3. 민트에서 체포. 광주 포로수용소 수용.

1952. 9.14 국방경비법 32조에 의해서 사형 언도.

1954. 3.14 군법에서 무기로 감형과 동시에 대전으로 이감

1960. 4.19 20년 감형

1968. 4.12 전주로 이감

1972. 7.14 전주에서 석방. 서울에서 페인트공으로 생활

1977. 4. 결혼. 딸1

1977.10. 1 보안감호소

1989. 9. 7 석방.

현재 민중당제원

67. 우용각(29.11.29)

원적 평북 영변군 필원면 천남리

주소

경력사항 1929.11.29 평북 영변군 필원면 천남리 출생

1942. 평양 심산소학교 졸업, 제2공업학교 기계과 3년 중퇴.

해방후 신의주공전 기계과를 수료

경제연구소(김일성대학 정치경제학부로 바뀜) 정치경제학과 3년 수료

경제연구소 근무

1958. 7. 9 정치공작원으로 남파 도중 울릉도 서북쪽 해상에서 해군함정에 의해 체포.

1심 사형, 2심 무기선고 41년간 복역.

*복에는 처(66)와 아들(45)이 있음

68. 안학섭(30. 4.7)

본적

주소

경력사항 1930.4. 7 강화도 출생

1950. 6 개성중학교 재학 중 전쟁으로 고향에 돌아와 민청에서 활동

1950년 인민군 후퇴한 뒤 강동정치학원에 입학

1953년 빨치산으로 청옥산에 위치한 강원도당을 찾아가다 체포. 군법회의에서 무기형을 선고 받음

1995.8.15 형집행 정지로 석방

2000. 5 현재 봉천동 '우리당제원'에서 공동체 생활

미혼, 가족은 강화도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형님이 있다

69. 오형식(32.4.15)

본적

주소

경력사항 1932.4.15 서울시 서초구 원자동 출생

1946 신중국민학교 졸업 경북중학교 입학(27회)

1950 경북중 5학년 재학 중 조선의용군 입대,

조선인민군대 복무

평양시 지방경비상 기술연구소 근무

1963 김일성 종합대학 화학부 졸업

원산농대 화학강좌 상급교원(조교수)

1969 대남 평화통일을 위한 정치공작에 파견

부산 기장쪽으로 남파, 10일만에 체포

1969.6.12 구속. 1심 사형, 2심 무기형 선고

대구교도소 복역 시 고문, 구타에 의한 전향 강요 거부

1999.2 25 형 집행정지로 석방(30년 복역)

2000. 1 현재 송파구 방이동 동생집에서 함께 살고 있음.

북한의 원산에 처(68세)와 2남(41세, 34세) 1녀(37세)가 살고 있다.

70. 윤화보(17.10.10)

본적 경기 광주

주소 황해도 신천군 사직동

경력사항 1916 전남 출생

해방 후 출소, 전쟁 때 입북

1952 .11.18 남파, 체포 10년 복역 후 반공법으로 5년 추가 복역

1967 만기출소

1979 감호소에 재수감

1989.7.20 출소(복역기간 - 10년 + 보호감호 15년)

가족은 부인(진순하), 딸(정혁), 누님, 형님, 누이동생

현 거주지-서울 쌍문동

건강상태-동맥경화,저혈압

71. 양희철(34. 9.25)

본적

주소

경력사항 1934.9.25 전북 장수군 계남면 가곡리에서 조각경 자작농의 3남으로 출생

1945. 8. 해방 후 서울에 올라와 휘문중학교 다님

1953. 7 종전 이후 유리공장에서 일함.

1956 검정고시를 거쳐 고려대 상과대학에 입학

1957 부산 헌병대에 입대

제대 후 단국대학교 3학년에 편입

1960 4.19 이후 학생운동에 적극 참여

1961. 3 북에서 내려온 큰 형과 함께 월북.

순안통일대학(교장 임춘추) 과정을 이수.

1961. 5. 16 남한에서 일어난 쿠데타 소식을 접함.

서철 부부장의 소련이나 체코 유학 권유를 뿌리치고 남으로 내려갈 것을 고집함.

1961. 7 남으로 돌아옴. 각 대학에 평화통일 지지세력을 만들기 위한 활동.

고대, 외국어대, 동국대, 경희대 등에 평화통일을 공감하는 학생들과 통일운동

1962 하반기 체포.

1963. 4. 24 구속. 서울지역 학생운동가들을 연행한 당국은 '양희철간첩단사건(고려대 지하당 사건)' 발표.

1심 사형, 2심 무기형

1999. 2. 25 형 집행정지로 출옥. 36년 복역

2000. 1 현재 서울 관악구 봉천3동 낙성대 근처에서 안학섭, 조창수 선생님 등과 우리당 제원(전화

888-6231, 011-9715-7398)을 운영. 진료 및 침술 담당

2000. 1. 16 약사 김용심(36)씨와 결혼

72. 양정호(34. 4. 3)

본적 경남 양산군 동면 여량리

주소

경력사항 1934. 4. 3 경남 양산군 동면 여량리 출생

부산 공업학교 (현 부산공고) 2회 졸업.

1950. 9.30 2차 학도병으로 참가(국군.통신병)

이후 인민군 포로가 됨.

1950.12. 인민군 편입. 통신중대 문대장 활동.

1957. 제대 후 기술대학 졸업. 청진제강소 기술지도원 근무.

1969. 4. 남파

1969. 6. 체포됨. 1심 사형.2심 무기징역 선고받고 30년 복역

*복에 처(62)와 2남(41,38)1녀(35)가 있음

73. 안희숙(31. 1.13)

본적 군산시 서 흥남동 350

주소 서울시 관악구 봉천3동 산39번지 7통5반

경력사항 1940. 4. 군산 팔마소학교 입학
 1945. 3. 졸업과 동시에 군산제지입사
 1945. 9. 군산 광동중학 입학
 1946. 3. 군산 광동중학 중퇴
 1948.11. 군정 포고령 위반으로 구속
 1949. 2. 집행유예 2년
 1950. 군산 민청 맹원
 1950.10 전북 장안산 입산
 1952. 1. 문장산에서 체포
 1952.12. 비상사태하에서 특별조치령으로 15년 언도. 마산,대전북역
 1964. 3.11 대전에서 석방
 1964. 6.10 춘천에서 반공법 위반으로 구속.2년6개월 언도
 1967. 2.10 대전에서 석방
 1968. 대전,서울에서 노동. 결혼. 부인은 출산시 사망.
 서울에서 거주시작
 1976. 6.16 사회안전법으로 구속
 1989. 9. 6 석방
 1990. 현 중앙대 부속고등학교 정문수위

74. 윤용기(26. 7. 2)

본적 경기 강화군 선원면
 주소
 경력사항 의용군 입대 인민군을 따라 월북
 1959. 7. 4 선원면 연리 이장을 만나러 왔다가 창리 야산에서 체포당함
 경기도경에서 고문당하고 불법무기소지, 불법장입등으로 기소되어 인천지방법원에서 무기형선고 받고 항소, 서울고등법원에서 무기형 확정
 1998. 3.13 석방

75. 안영기(29. 6.19)

본적 경상북도 선산군 선산면 송부동
 주소
 경력사항 1929.6.19 경상북도 선산군 선산면 송부동에서 태어남
 1950.4. 경남상업중학교 졸업(2회)
 1950.9. 조선인민군 복무(3년)
 1953.10. 조선인민군 제대
 1958. 평양건설대학 건축공학부 졸업(김책공대)
 1958. 평양도시건설사업에 참여하여 옥류관 등을 건설함
 1962. 평화통일을 위한 정치공작에 동원되어 활동 중 체포당함. 무기징역
 1999.2.15 형 집행정지로 석방
 2000. 현재 과천 '한백의 집'에서 공동체 생활

76. 윤수갑(23. 4. 7)

본적 부산시 남구 용호동
 주소
 경력사항 해방직후 사회주의 운동
 1967. 3. 월북-12일간 체류하다 내려옴
 1967. 9. 자신과는 무관한 인혁당 사건으로 체포됨
 1998. 3.13 석방

77. 양원진(28. . .)

본적
 주소
 경력사항 1928 전북 군산 출생
 신흥대 졸업
 1962 남파, 체포된 뒤 무기형 선고
 1989 출소
 현재 경기도 안성에 거주

78. 이영성(32. . .)

본적
 주소
 경력사항 1932 개성 출생
 서울제일고보 졸업, 서울공대 재학 중 의용군 입대, 김책공대 입학, 김책공대 재학 중 체코 유학
 1957 소환
 1958 남파
 1978 출소

79. 이명직(26.10.23)

본적
 주소
 경력사항 1926.10.23 종로구 익선동 출생(12남매 중 셋째)
 교동국민학교, 보성중학교, 경성경제전문학교(서울상대 전신)
 1947 미군정청이 실시한 국대안 거부 투쟁, 퇴학
 1947-49 신문학원(지금 신문방송학과의 원조) 수학
 공업신문사 교통부 기자 1년, 강원도 원주 육민관 중학교 교사
 1950 의용군 입대(해안 방어부대 위생병) - 맹산폭격, 급성폐렴 등으로 죽을 고비 넘김
 1953 민족보위상(국방장관) 명령 709호 - 남쪽 출신 학생 모집 기간 동안 강원도 천대군 인민학교 교편
 1954-57 송도정치대학에서 30여개 과목 교육, 평양고등상업전문학교에서 정치경제학 강의
 1959 결혼
 1963 남하
 1964.11 친척의 신고로 체포, 1심에서 사형, 2심 무기감형
 1968.10 형 확정. 대전교도소 17년, 전주교도소 3년
 1977 노촌 이구영 선생에게 한학 수학
 1988.12.21 고 김남주 시인과 함께 출소
 현재 난곡서예학원 운영

80. 장 호(20.11.29)

본적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140번지
 주소 서울시 은평구 진관내동 440-127
 경력사항 1920. 11. 29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140번지에서 태어남

1938. 서울 보성고교 중퇴
 1938. 4. 중국 동북 등 외국에서 자유노동자 생활(8년간)
 1945. 강원도 도당부 철원·회양군 당부 사업
 1946. 조선문화협회 강원도 위원회 활동
 1948. 인민유격대 제10지대 5인조 공작
 1950. 6. 서울시 당 위원회 소속 해방일보 논설부 기자 및 로동신문
 기자로 활동
 1958. 8. 대남 평화통일을 위한 정치공작사업을 하던 중 체포되어 무기
 징역
 1991. 형 집행정지로 석방
 2000. 현재 과천 '한백의 집'에서 공동체 생활

81. 전창기(18. 4.10)

본적 천안시 원송동
 주소
 경력사항 1932. 천안 보통학교 졸업
 1933. 충남 성환광업주식회사 기계운전
 1945. 황해도 송도 제철소 운수과 선로원
 1945. 9. 평양시 내무서(치안서) 근무
 1949.10. 평남 대동군당에서 근무
 1950. 후퇴당시 평북 수풍군수공장 위원장
 1954. 중앙에서 소환, 그후 공작원으로 남파
 1955. 8. 체포.10년 연도 대전서 복역
 1965.10. 대전서 석방, 그 후 천안시 공명동에서 양계업, 자유노동
 1977. 1. 보안감호 조치로 수감
 1989. 7.27 석방

82. 조상록(46.3.9)

본적
 주소
 경력사항 1946. 3. 9 출생
 1965 경희대 법대 입학
 1966 경희대 법대 2년 중퇴.
 그후 군복무 마치고 가발생산업 종사
 1973 9대 국회의원선거 전남 순천에서 무소속으로 출마, 낙선
 1973 원주대 편입
 1975 원주대 졸업
 1976 중앙대 사회개발대학원 연구과정 수료
 1977. 4 일본 메이지대학 대학원에 청강생으로 유학(국제정치학)
 1978. 1 방학때 일시귀국 중 중앙정보부에 연행. 17일동안 고문, 간첩 혐의 등으로 기소. 무기징역 선고
 1999 남한출신 최장기수로 안동교도소(수인번호 1310번)에서 옥살이 중

83. 장병락(34. 7.25)

본적
 주소
 경력사항 1934. 7.25 원산시 와우동 출생
 원산공업중학교, 원산고급중학교를 거침.
 1950. 6.23 해군하사관 학교 자원 입대
 전쟁 발발 후 보병으로 참전.
 1959. 3. 제대와 동시에 당으로부터 소환.
 1962. 3. 정치공작원 안내선의 기관장으로 남파(해상 안내원)

1962. 4. 5. 체포됨.
 무기징역 선고받고 37년 복역
 *복역 처(64)와 백일이 되기전에 두고 온 아들(39)이 있음.

84. 조창손(29.8.29)

본적 황해도 장연군 후남면 삼가리(출생지)
 주소 강원도 고성군 성북리 10번
 경력사항 당시 가정은 모친중풍, 부친 숲 굽는 일로 학업무. 1947년 부친사망으로 장연군 고모집에 기
 거. 낮에 과수원일, 밤에는 일본인 경영학교에 다니던 중 해방
 야간 중학 졸업
 1946. 민청가입
 1950. 5. 조선 인민군 입대. 후방총국에 근무중 후퇴
 다시 자강도에서 5군단 12사에 편입, 전투중 병으로 후송, 다시 해군부에 편입 청진일대 해안방어부대
 직속군기 보호소에서 근무
 1956.10. 제대 장기군 농기계 임경소배치
 1956.12. 강령부포 수산사업소 보위과로 이동
 1957. 결혼. 아들,딸이 있음(부인-권순옥, 딸-금녀, 아들-정삼)
 1957.12. 수산성 중앙 간부양성소 기관반 졸업.
 본선에서 운반선 기관장
 1959. 2. 조선노동당중앙위원회 연락부소환
 1962. 3.28 접선차 공작원의 변질로 경찰 해군 방첩대의 집중사격으로 기관이 파손, 육지상륙.
 1962.4.4 울산에서 체포. 무기선고
 1991.12.24 석방. 현재 우리 탕제원에 거주
 건강상태 - 위장질환, 폐결핵, 간기능 약화

85. 정순덕(30. .)

본적
 주소
 경력사항 1933. 출생
 1950. 1. 결혼
 1951. 2. 진양군 유격대
 1963.11. 체포.덕유산에서 대퇴부 총상으로 한쪽다리 절단.무기연도 . 23년간 복역
 1985. 8. 가석방
 1995. 8. 낙성대 '만남의 집' 생활

86. 정순택(21.5.8)

본적
 주소
 경력사항 1921.5.8 충북 진천군 출생
 1944. 1 경성경제전문학교 졸업
 졸업직후 학도병으로 징집당함
 1945. 11 경성경제전문학교 재입학
 1946. 6 경성경제전문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2학년 편입

1946. 7 신한공사 입사
 1947. 6 미군정 상공부 관산물자 배급소 경리과장
 1949. 5 월북
 1949. 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업성 영업관리처 재정부장
 1951. 12 상업성 외국인접대관리처 부처장
 1952. 6 내각경제계산자격심사위원회 책임심사원
 1955. 5 내각기술자격심사위원회 책임심사원
 1958. 7 대남정치공작원으로 남파. 체포
 1959. 8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무기징역 선고
 1980. 2 반공법 위반으로 제2형 선고
 1989. 12 가석방 출소 이후 현재까지 보안관찰 대상자
 1997년 한겨레신문사에서 『보안관찰자의 꿈』 (정순택, 한겨레신문사, 1997) 펴냄

87. 전 전(23. 7. 6)

본적 전북 옥구군 개성면 옥석리 407
 주소
 경력사항 1931. 어릴때부터 농사
 1946. 4. 옥구군 민청 가입
 1947. 3. 5 남로당 가입
 1947. 9.14 결혼. 아들 사망
 1948. 2.7 구국투쟁대 구속 벌금형
 1949. 조국통일 호소문 지지운동
 1950. 두 형님 희생
 1950. 7. 면당책
 1950.10.15 입산(임실) 빨치산 중대장
 1952. 1.17 백련산 동굴에서 체포. 광주수용소
 1952. 9.12 국방경비법 2조로 20년. 대전교도소로 이감
 1960. 4.13 2년3개월 감형
 1970. 3. 3 전주에서 석방. 갱생보호소 기거, 노동
 1971. 4.13 이북찬양으로 구속 5년 징역
 1976. 5. 7 만기와 동시에 감호소로
 1989.10.12 석방. 서울갱생보호소로
 1995. 1. 현재 인천거주

88. 조용순(15. .)

본적
 주소
 경력사항 1915 충북 괴산 출생
 함일운동가, 광주학생의거 참여
 1952 남파, 관상철학가로 공작활동, 혈암이 터져 반신불수, 옥중에서 30일 단식 기록
 1989. 2 옥사
 구체적인 악력이 파악되는대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89. 진태윤(20. 2.29) - 사망 (당시 77세)

본적
 주소
 경력사항 1920. 2. 29 함경남도 점평군 출생
 1945 해방 후 민청 활동
 1962 남하, 체포
 1963. 4. 9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무기형 확정, 26년간 옥중 생활
 1988.12.21 전주교도소에서 가석방 조치로 출소
 1997. 4.2 옥고의 후유증으로 고생하시다가 폐혈증으로 운명

90. 최공식(26. 9.27)

본적 전남 영광군 흥농읍 칠곡리 273
 주소 전남 영광군 흥농읍 칠곡리 273
 경력사항 1941. 법성보통학교 졸. 대전에서 회사 점원생활
 1945. 3월까지 점원생활. 이때 결혼하여 고향에 돌아와 농사
 1950. 면 생산유대(자위대)에서 활동.
 1951. 3. 체포. 무기징역
 1960. 감형(20년으로)
 1971. 대전서 출소하여 줄곧 농사.
 1977. 9. 6 출소. 현재 고향에서 농사

91. 최하중(27. 3.21)

본적 함경북도 화성군 하동면 룡포동(출생지)
 주소
 경력사항 국가계획위원회 무역계획국 수출계획부장으로 근무
 1963. 3. 4 당시 숙부 최수중(당시 5.16주체세력, 국가 재건최고회의 최고위원 육군소장, 8사단장)과 통일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서울 도착.
 최수중의 장모댁에 방문하여 전방사단 관사에 거주하던 반공포로 출신 자형을 찾아가 하루밤을 숙식.
 1963. 3. 5 새벽 자형집에서 자고 있던 중 특무대 군인 6~7명이 들어와 체포함. (조사도중 전기고문, 물고문, 구타등을 당함)
 육군본부보통군법회의에서 검찰부에 송치하기까지 7개월동안 특무부대, 영동포미군정보부대등지에서 조사를 받음.
 육군보통군법회의에서 무기연도에 함소
 육군고등군법회의에서 기각
 대법원에서 무기형 확정
 1998. 3.13 석방

92. 최남규(12. 4.16)

본적 함북 서면 명남동 41
 주소
 경력사항 1913. 중국동북북간도 생활터전마련으로 이주
 1923. 소학교 입학. 가사돌노라 8년만에 졸업.
 아버지는 지역독립군 군사금마련 책임자.
 1925. 부농의 딸과 강제결혼
 1929. 재혼. 1남 3녀
 1930. 자력으로 북간도 웅천시 영전중학입학
 신문팔이 등으로 고학
 1935.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
 동시에 만철 국립대학이 설립되었는데 조선인으로는 처음 합격(전공은 지리)
 1937. 졸업
 1938. 간도성 연길 사립학교 교유로 배치(교유,교도,교부)
 1943. 고등관 시험에 여러번 응시했으나 항상 면접에서 반일감정으로 낙방.
 1945. 고등관시험에 통과했으나 해방
 1947. 간도성 임시정부 사무관으로 근무
 1948. 1. 김일성 연변 전원공서 행정과장 근무
 1950.11. 평양으로 나와 함북 인민위원회 교육부 사학부 배치
 1951. 1. 입대하자 곧 후퇴하여 중국으로 가서 두만강 넘어 청진으로 오다가 폭격으로 다리부상
 1956. 중앙당 소환
 1957. 4. 남파
 1975. 8. 9 입소
 1989. 8. 8 출소
 1999.12.11 별세

93. 최수일(39.5.25)

본적

주소

경력사항 1939. 5. 25 평북 의주군 가산면 방산리의 빈농가에서 출생
전쟁 후 평북 청수에서 화학공업전문학교 졸업 인민군에 입대했다가 당에 소환. 대남공작원 수송임무인 안내원으로 일함.
1965 남파공작원을 안내하던 배가 발각되면서 체포.
1965. 3. 4 구속. 선장과 부선장은 사형집행되고, 승무원인 선생은 무기형
(남한 땅이라고는 교도소 땅 밖에 밟아보지 못함)
1999. 2. 25 형 집행정지로 석방(34년 복역)
1999. 3. 6 현재 대전근터의 '적오산농장'에서 기러기, 토끼, 토종닭을 키우는 일에 종사
북한에 처(59세)가 있음.(북에 사는 처는 남파될 당시 아직 아이도 없던 스물넷의 새색시였음)

94. 최선욱(28.7.17)

본적

주소

경력사항 1928. 7. 17 경기도 강화군 삼산면 석모리(석오도)에서 가난한 소작농의 막내로 태어남.
야학 공부. 부모님과 함께 농사
1950년 전쟁시 토지개혁 실시로 1천5백평의 땅을 분배받음.그 후 의용군 지원, 인민군에 입대하여 북으로 감
1953년 종전 후 인민군에서 문화예술사업의 일환으로 조직한 <화선악기제작대>에 참가
1957년 체대 후 군복무 시 경력으로 함경남도 함흥의 악기제작소에서 가야금 등 현악기 개조사업을 하는 노동자로 일함
1960년 함경남도 간부학교(후의 공산대학)에서 6개월 수학후 공산대학으로 개편됨에 따라 1학년 입학
1962. 8 남파·활동 중 체포됨
1962. 8. 12 구속.1심에서 사형, 2심 무기
큰형,큰조카,둘째형 조카 등 3명도 국가보안법 상의 불고지죄로 구속
1970년 경 남한에 사는 딸에게서 편지가 왔지만 끝까지 전함을 거부하자 교도소측에서 '딸이 암으로 죽었다'며 편지왕래를 중단시
켜 버림.
1999. 2. 25 형 집행 정지로 석방(37년 복역)
1999. 3. 6 현재 대전근터의 '적오산농장'에서 기러기, 토끼, 토종닭을 키우는 일을 하고 있음.
남한에 작은 교회의 전도사로 일하는 딸(52세)이 있고(첫째 부인은 전쟁중에 선생이 돌아가신 줄 알고 재혼을 함), 북에도 처(61세)와
두 딸(42세, 39세)이 있다.

95. 최한석(74. . .)

본적

주소

경력사항 1914 경북 상주 출생
함경남도 체신부장으로 있다가 남파
이불 무게를 감당하지 못할 만큼 심장이 약해 이불에 끈을 달아서 양쪽에 걸게 하고서야 잠을 잘 수 있는 분으로 알려짐.본격적으
로 노래 공부를 한 테너
1976.5.15 고문으로 사망

96. 최재필(. . .)

본적

주소

경력사항 1929 광주학생의거 당시 이리농업 조직책임자로 3년형
해방 전부터 북쪽에 거주.
당시 직위는 함남 도인민위원회 부위원장
전쟁 후 남파
1987. 5 옥중사망

97. 최철교(31. . .)

본적

주소

경력사항 1931 출생, 일본 법정대 졸업

민단간부

1974 귀국. 체포

사형에서 무기로 감형

1990 출소

98. 홍경선(25. 5.21)

본적 충북 조치원

주소

경력사항 천안 농고 4회 졸업.
6.25 전쟁당시 월북
1967. 9.17 조치원에 내려 왔다가 체포됨
1998. 3.13 석방
*70년대 전향테러를 당하던 중 한달 단식을 하다 쓰러져 건강이 극도로 나빠짐
후유증으로 폐결핵 위장병을 앓고 있음.

99. 홍경선(25. 5.21)

본적 충북 조치원

주소

경력사항 천안 농고 4회 졸업.
6.25 전쟁당시 월북
1967. 9.17 조치원에 내려 왔다가 체포됨
1998. 3.13 석방
*70년대 전향테러를 당하던 중 한달 단식을 하다 쓰러져 건강이 극도로 나빠짐
후유증으로 폐결핵 위장병을 앓고 있음.

100. 홍문거(21. 9.14)

본적 평양시 선교리 32번지

주소 대전시 유성구 구암1동 649-4

경력사항 1934. 평양중로 공립보통학교 졸업
1941. 경남진해 고등해운 양성소 항해과 졸업
1945. 8.15 외항선 2등 항해사 승선 근무 후 평양에서 공무원으로 근무
1948. 원산 해양전문학교 교원(약 8년간)
1955. 대남 평화통일을 위한 정치공작사업에 동원
1957. 체포되어 무기징역형 선고
1993. 형 집행정지로 석방
2000. 현재 과천 '한백의 집'에서 공동체 생활

101. 한장호(23. 5.7)

본적 함경북도 나진

주소 평남 순안군 오산리

경력사항 1948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1950 서울 한성중학교 재직중 후퇴
1956 평안남도 순안중학교 근무
1957 대남공작 활동 중 체포, 무기형 확정
1995.8.15 형 집행정지로 출옥
현재 대전 '사랑의 집' 거주
건강상태: 노쇠, 기력감퇴

102. 한백필(20. 2.16)

본적 경기도 광주군 돌마면 율리

주소

경력사항 1940. 중앙고보
1946. 고대 입학
1950. 후퇴때 중퇴
1950. 9.23 후퇴때 월북. 평양출판관리국 기획부장
1954. 3. 3 결혼. 민화(56년생), 선화(61년생)
1954.10.20 안동에서 체포
1957. 5.10 구형무기. 징역10년
1959.12.20 형집행정지(하체절단)
1961. 7. 5 대전에 재입소
1968. 8.16 출소
1977. 4.18 보안 감호소 구속
1989. 7.25 출소

103. 황세환(32.12.12)

원적 황해도 웅진군 웅진읍 도원리 함촌
본적 대전시 동구 성남2동 216번지
주소
경력사항 1946. 국졸
1950. 6.25 의용군 입대
1953. 6. 2 체포
1973. 6.25 출소. 대전갱생보호소
1975. 7.23 감호소 구금
1989. 8. 7 석방

104. 홍영기(29.4.5)

본적
주소
경력사항 1929. 4. 5 충남 부여에서 출생
1950 서산농고 재학중 전쟁 발발하여 민청일몰 하다가 후퇴. 의용군에 입대하여 전투에 참가.
화선 입당. 제대후 평안남도 순안군의 협동농장에서 군당지도원으로 일함.
1962 정치공작원으로 남파, 부여 부근에서 체포
1962. 4. 5 구속. 1심 사형, 2심 무기.
아들을 만난 어머니도 불고지죄로 기소됨(90세가 넘는 나이까지 아들의 옥바라지를 하다가 1994년 돌아가심)
1976 전향전당반의 구타와 고문에 장기간 단식투쟁으로 전향 거부 및 전향강요 하지 않겠다는 약속 받아냄.
영어, 일어, 러시아어, 중국어, 독어, 독학
1999. 2. 25 형 집행정지로 석방. 37년간 복역
복에 처(62세)가 있다

105. 허영철(20. 9.25)

본적 전북 김제시 옥산동 421
주소 전북 김제시 옥산동 384-1
경력사항 1927~30. 부안군 부안면 성산 사립학교
1930. 농업에 종사
1937~39. 함경도 단풍선 철로공사(토목공사)
1940~43. 일본에서 광산노동
1943년 말. 부안으로 귀가 농업
1945. 면에서 청년사업
1947. 면당책임자(위원장)
1947년 말. 군당 조직부 책임지도원(비합)
1948. 3. 2,7구국투쟁으로 구속. 3개월만에 석방
1948. 8. 지하선거에 관련, 구속,벌금형. 다시 지명수배되어 지하로.

1950. 7.21 군당 조직부 사업선거때 부안군 인민위원장
1951. 3. 평양중앙당(동북)학교에서 공부
1951. 7. 황해도 장풍군 인민위원회에 부위원장
1952. 8. 금강학원(황해도)에서 학업(당시 학생은 거의 남쪽출신). 이후 박헌영 사건으로 중앙당 제1분교
로 가서 공부
1953. 8. 중앙당 연락부에 소환
1954. 8. 남파(광주에서 활동)
1955. 7. 체포. 무기
1991. 2.25 석방

11. 2000년 9월 2일

북송자 명단

2000년 9월 2일 복송 장기수 63명

1. 강동근 귀향희망 비전향장기수, "85세, 37년 복역"
2. 고헌인 귀향희망 비전향장기수, "66세, 34년 복역"
3. 김동기 귀향희망 비전향장기수, "69세, 34년 복역"
4. 김명수 귀향희망 비전향장기수, "79세, 37년 복역"
5. 김석형 귀향희망 비전향장기수, "87세, 30년 복역"
6. 김선명 귀향희망 비전향장기수, "76세 43년 복역"
7. 김영달 귀향희망 비전향장기수, "67세 30년 복역"
8. 김영만 귀향희망 비전향장기수, "72세 30년 복역"
9. 김영태 귀향희망 비전향장기수, "71세 34년 복역"
10. 김용규 귀향희망 비전향장기수, "78세 34년 복역"
11. 김용수 귀향희망 비전향장기수, "70세 27년 복역"
12. 김우택 귀향희망 비전향장기수, "81세, 40년 복역"
13. 김은환 귀향희망 비전향장기수, "71세 31년 복역"
14. 김익진 귀향희망 비전향장기수, "71세 31년 복역"
15. 김인서 귀향희망 비전향장기수, "75세 34년 복역"
16. 김인수 귀향희망 비전향장기수, "77세 36년 복역"
17. 김종호 귀향희망 비전향장기수, "88세, 31년 복역"
18. 김중중 귀향희망 비전향장기수, "75세 29년 복역"
19. 김창원 귀향희망 비전향장기수, "67세 31년 복역"
20. 류한욱 귀향희망 비전향장기수, "90세, 37년 복역"
21. 리경찬 귀향희망 비전향장기수, "66세 35년 복역"
22. 박문재 귀향희망 비전향장기수, "78세 28년 복역"
23. 박완규 귀향희망 비전향장기수, "72세 33년 복역"
24. 방재순 귀향희망 비전향장기수, "84세, 38년 복역"
25. 석용화 귀향희망 비전향장기수, "77세 22년 복역"
26. 손성모 귀향희망 비전향장기수, "71세 19년 복역"
27. 송상준 귀향희망 비전향장기수, "70세 36년 복역"
28. 신광수 귀향희망 비전향장기수, "72세 15년 복역"
29. 신인수 귀향희망 비전향장기수, "83세, 30년 복역"
30. 신인영 귀향희망 비전향장기수, "72세 32년 복역"
31. 안영기 귀향희망 비전향장기수, "72세 38년 복역"
32. 양정호 귀향희망 비전향장기수, "70세 31년 복역"
33. 오형식 귀향희망 비전향장기수, "69세 31년 복역"
34. 우용각 귀향희망 비전향장기수, "72세 42년 복역"

35. 유연철 귀향희망 비전향장기수, "89세 27년 복역"
36. 유운형 귀향희망 비전향장기수, "77세 34년 복역"
37. 윤용기 귀향희망 비전향장기수, "75세 40년 복역"
38. 윤희보 귀향희망 비전향장기수, "84세, 25년 복역"
39. 이경구 귀향희망 비전향장기수, "71세 38년 복역"
40. 이공순 귀향희망 비전향장기수, "67세 33년 복역"
41. 이두균 귀향희망 비전향장기수, "74세 31년 복역"
42. 이세균 귀향희망 비전향장기수, "80세 29년 복역"
43. 이재룡 귀향희망 비전향장기수, "57세 30년 복역"
44. 이종 귀향희망 비전향장기수, "90세, 25년 복역"
45. 이종환 귀향희망 비전향장기수, "78세 43년 복역"
46. 임병호 귀향희망 비전향장기수, "86세, 32년 복역"
47. 장병락 귀향희망 비전향장기수, "67세 38년 복역"
48. 장호 귀향희망 비전향장기수, "81세, 32년 복역"
49. 전진 귀향희망 비전향장기수, "78세 38년 복역"
50. 전창기 귀향희망 비전향장기수, "83세, 23년 복역"
51. 조창손 귀향희망 비전향장기수, "72세 30년 복역"
52. 최선목 귀향희망 비전향장기수, "73세 38년 복역"
53. 최수일 귀향희망 비전향장기수, "62세 35년 복역"
54. 최하종 귀향희망 비전향장기수, "74세 36년 복역"
55. 한백렬 귀향희망 비전향장기수, "81세 24년 복역"
56. 한장호 귀향희망 비전향장기수, "78세, 39년 복역"
57. 한중호 귀향희망 비전향장기수, "84세 13년 복역"
58. 한춘익 귀향희망 비전향장기수, "76세 29년 복역"
59. 함세환 귀향희망 비전향장기수, "69세 34년 복역"
60. 홍경선 귀향희망 비전향장기수, "76세 33년 복역"
61. 홍명기 귀향희망 비전향장기수, "72세 38년 복역"
62. 홍문거 귀향희망 비전향장기수, "80세, 37년 복역"
63. 황용갑 귀향희망 비전향장기수, "77세 35년 복역"

12. 사회안전법 출소자 명단

1988년 사회안전법 출소자 명단

성명	연령	수형 기간	현 상황	사건
1.강중건	50	13	서울 안암동(90')	학원침투 사건
2.권상출	82	32	결핵(90')	?
3.김광길/	87	28	사망	?
4.김광삼	85	31	피부암, 폐암(90)	?
5.김병인	74	30	89년 사망	빨치산
6.김복성	83	28	구타로 인한 정신 이상	?
7.김현진	68	30	89년 사망	빨치산
8.박순철	51	17	서울/한쪽 눈 실명	반공법 위반
9.서준식/	53	17	인권운동 사랑방 대표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
10.신현철/	84	23	의정부시 가농1동 610-10	
11.양재영	82	29	사망	
12.이복남	61	27	89년 사망	?
13.이오봉	72	23	?	반공법 위반
14.이인모	86	34	과천 구세군 양로원(90)	빨치산
15.이종(중?)/	89	27	복송	정치공작원
16.정수학	87	28	정신질환	?
17.조금덕	76	18	한쪽 다리 못 씌	?

1989년 사회안전법 출소자 명단

이름	나이	수형기간	현상황	사건
1.강동근/	85	34	복송	?
2.고광(파)인/	66	34	복송	빨치산
3.권낙기	53	18		간첩단 사건
4.김국홍	75	27		정치 공작원
5.김권식	79	?	정신질환	?
6.김영달/	67	30	복송	정치공작원
7.김영만/	72	30	복송	빨치산
8.김영승/	66	37	90년 신사동 / 현재 노동	빨치산
9.김용규/	78	34	복송	빨치산
10.김중중/	75	29	복송	정치공작원
11.김태수	75	29	이리(90)	빨치산
12.김해섭/	71	34	결핵(90)/고령으로 휴식중	빨치산
13.배동준/	78	29	경북 봉화군 석평리 524	정치공작원
14.송상준/	75	33	복송	빨치산
15.신인수/	83	29	복송	정치공작원
16.안희숙/	72	29	90년 중대부고 정문 수위	빨치산
17.유운형/	77	34	복송	빨치산
18.윤기남	75	27	광주 거주, 고혈압, 심장병(90)	빨치산
19.윤희보/	83	26	복송	조직사건
20.이두균/	74	31	복송	정치공작원
21.이래선	79	36	반신불수	부역조직사건
22.이세균/	80	29	복송	조직사건
23.이학근	78	29	전주 원암수양관(90)	정치공작원
24.임방규/	69	34	민중탕제원	빨치산
25.전진/	78	34	복송	부역
26.전창기/	83	23	복송	인민군으로 체포
27.정대철	74	34	사망	빨치산
28.최공식/	75	26	전남 영광군 흥농읍 칠곡리273	부역
29.최남규/	87	29	99년 사망	정치공작원
30.한백렬/	81	23	복송	정치공작원
31.한춘익	76	29	복송	정치공작원
32.함세환/	69	34	복송	빨치산
33.황용갑	77	35	복송	빨치산

13. 1990년 비전향
장기수 명단

1990년 비전향 장기수 명단

1.강용주/	39	14	99.2.25 형집행정지	구미유학생 사건
2.고성화/	85	20	93.3.6 형집행정지	일본 밀항
3.권양섭	84			통혁당재건사건
4.김동(동?)기/	69	34	복송	정치공작원
5.김명수/	79	37	복송	공작선 선원
6.김석형(현?) /	87	30	복송	정치공작원
7.김선명/	76	43	복송	최장기 복역
8.김성만	44	?		구미유학생사건
9.김용수	70	27	복송	정치공작원
10.김우택/	81	40	복송	남파 중 체포
11.김은환/	71	31	복송	정치공작원
12.김익(익?)진/	71	31	복송	정치공작원
13.김인수/	77	36	복송	남파 중 체포
14.김중호	88	31	복송	정치공작원
15.김창원/	67	31	복송	정치공작원
16.김형규	?			서독시민권보유
17.류한옥/	90	37	복송	우반신 불구
18.리공순/	67	33	복송	정치공작원
19.박문재/	78	28	복송	?
20.박봉현/	82	37	전주 거주	?
21.박완(완?)규/	72	33	복송	정치공작원
22.박종린	69	35		정치공작원/ 붉은별 사건
23.박주섭	70			정치공작원
24.방재순	84	38	복송	정치공작원
25.서옥렬/	73	29	전남 광주 거주	?
26.손성모/	71	19	복송	정치공작원
27.신광수/	72	14	99.12.31 출소 봉천동 만남의 집	재일교포
28.신귀영	64			간첩조작주장
29.신인영/	72	32	복송	남로당 출신
30.안영기/	72	38	복송	남파 중 체포

31.안학섭/	71	42	우리당제원	정치공작원
32.안희천	66			남북어부
33.양정호/	70	31	복송	정치공작원
34.양희철/	67	36	우리당제원	
35.오형식/	69	31	복송	친척만나러 왔다 구속
36.왕영안	74			정치공작원
37.우용각/	72	42	복송	정치공작원
38.윤수갑/	78	31	?	정치공작원
39.윤용기/	75	40	복송	정치공작원
40.이경찬/	66	35	복송	안내원
41.이재룡/	57	30	복송	정치공작원
42.이종희	78			정치공작원
43.이준호	51			간첩조직주장
44.임병호/	86	32	복송	정치공작원
45.장병낙	67	38	복송	공작선 기관장
46.장의균	49		?	조총련계, 간첩조직주장
47.장호/	81	32	복송	정치공작원
48.조상록/	51	21	99년까지 수감중	간첩조직주장
49.조창손/	72	30	복송	공작선 부선장
50.최선목(육?)/	73	38	복송	정치공작원
51.최수일/	62	35	복송	공작선 선원
52.최하중/	74	36	복송	반공법 위반
53.하원차랑	50			간첩조직주장
54.한장호/	78	39	복송	정치공작원
55.허영철/	81	36	전북 김제시 옥산동 384-1	정치공작원
56.홍경선/	76	33	복송	정치공작원
57.홍명기/	72	38	복송	정치공작원
58.홍문거/	80	37	복송	정치공작원

복송자 63명 중 56명 포함

누락자 : 김영태, 김인서, 석용화, 유연철, 이경구, 이종환, 한종호

14. 옥중 사망자 명단

비전향 옥중 사망자 명단

성명	형무소
강동찬:1986	대전
고봉윤:1972	대구
공인두:1988	감호소
공인두:?	감호소
공재용:1974	감호소
공재용:1976	감호소
권창수:?	대전
권홍직:?	감호소
김경익:1977	감호소
김규창:1980	감호소
김규호:1976	광주
김대석:1971	대구
김영호:1973	대구
김용선:1980	감호소
김용철:1976	감호소
김용철:?	감호소
김태원:1974	대전
김홍직:1977	감호소
문갑수:1987	감호소
백갑기:1977	감호소
백갑기:?	감호소
변형만:1980	감호소
송순회:1979	감호소
신춘복:1975.11	광주
안준호:1977	감호소
윤종하:1974	대구
이상율:1989	감호소
이용운:1985	대전
이훈동:1978	감호소
정영훈:1976.6	대구
최정수:1981	감호소
탁해섭:1978.10	전주
하아청:1975	감호소
황필구:1985	대전

성명	형무소
권오금:1970.2	전주
기세일:1975.4.26	대구
김승윤:1980	대전
김태선:1973.10	전주
노천도:1980/	대구
박윤영:1974	광주
박재복:1965	대전
박정래:1978	대구
박창술:1988.8	대전
배학수:1974	대전
변치수:?	광주
손순남:1969	대구
손순영:1979	대구
신창길:1988	대구
윤석만:1969.2	전주
이동근:1974	광주
이선우:1987	광주
이양섭:1969	광주
이연승:1972	대구
이영호:1973	광주
임창규:1979	광주
장한영:1976	광주
정순직:?	광주
조용순:1989.1	대전
조인국:1973.2	전주
최재필:1987	대전
최종천:1969	대구
최주백:1987	대전
최한무:1969.8	대구
하상혁:1969	대구
한태갑:1972	대구
한현수:1972	대전
현명원:1974	광주
황대연:1969	대구

15. UN 인권이사회 관련

클리핑

UN 인권위원회 관련 클리핑

민간단체 인권보고서 첫선/정부작성내용 비판... 신체자유 미흡평가

한겨레 1992-04-29 14면 (사회) 판 뉴스 1429자

◎민변·한교협 공동발간... 설명회 갖기로

한국정부가 90년 국제인권규약에 가입한 뒤 규약규정에 따라 91년 7월 국제연합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인권보고서를 반박하는 재야인권단체의 반대보고서가 작성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는 28일 △국가보안법 △신체의 자유 △사상과 양심의 자유 등 23개 항목에서 정부가 낸 인권보고서의 내용을 비판하는 한글 1백50여쪽, 영문 1백50여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반대보고서 작성을 마쳤다. 이번 반대보고서는 우리사회의 법체계 전반에 걸친 인권실태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최초 민간보고서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반대보고서는 정부보고서에 대해 “많은 부분에서 규약의 조항과 관련된 남한의 법조문을 열거하는 데 그치고 있을 뿐”이라며 “실제의 인권보장 상황을 보여주는 사실들이 언급되어 있지 않으며 인권에 영향을 주는 법원의 판례나 정부의 조치 등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대보고서는 이에 따라 “결론적으로 정부보고서는 규약이 보장하는 인권이 침해되는 상황에 관해 설명하지 않음으로써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해 양호한 것으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고 비판했다.

반대보고서는 한국에서 규약의 이행에 영향을 끼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와 장애를 한반도의 분단이라고 규정한 뒤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인권을 침해하는 억압적인 법률들이 만들어졌고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말과 행동이 북한을 이롭게 한다는 이유로 모두 처벌의 대상이 돼 왔다”고 평가했다. 반대보고서는 국가보안법과 관련해 “남한에서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라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은데도 정부보고서는 설명이 너무 부족하고 이 법에 의한 인권의 침해상황을 전혀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반대보고서는 이에 따라 △간첩죄 및 목적수행죄 △잠입·탈출죄 △찬양·고무·동조·이적단체 구성·이적표현물 제작죄 △회합·통신죄 등 국가보안법 조항에 대한 자의적 해석·적용이 끼친 인권침해 실태를 문익환목사·임수경씨 방북사건, 서울사회과학연구소사건 등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다. 신체의 자유와 관련해 반대보고서는 헌법과 형사소송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권리실현에 장애를 주는 특별법의 존재 △정부당국자나 수사담당자들의 관행화된 불법구속·구금 등이 규약이 규정한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기에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반대보고서는 특히 △국가안전기획부, 경찰청 대공분실 등 수사기관에서의 고문 및 가혹행위 △국가안전기획부, 기무사 등 특별수사기관의 인신 구속 △불공정한 장기 구속과 구속적부심 제도 등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실례를 들어 지적했다.

한편 민변과 인권위원회는 다음달 초 유엔인권이사회에 반대보고서를 보내는 한편 정부보고서를 평가하는 7월초의 유엔인권이사회 회의에 인권대표단을 파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다음달 안으로 두 보고서의 차이점을 소개하는 설명회도 열 예정이다.

“정부 인권보고서는 잘못” /KNCC·민변/「반대보고서」UN제출키로

동아일보 1992-04-29 22면 (사회) 판 뉴스 600자

한국 기독교 교회협의회(KNCC) 인권위원회와 민주화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8일 정부가 지난해 7월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인권보고서의 내용을 반박하는 반대보고서를 작성,영문번역작업을 마치는대로 유엔인권위에 제출키로 했다.

민변 등이 작성한 반대보고서는 △국가보안법 △신체의 자유 △사상과 양심의 자유 등 23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16절지 1백50페이지 분량이다.

이 반대보고서는 정부측의 보고서에 대해 「많은 부분에서 국제인권규약과 관련된 법조문을 열거한데 그치고 있다」며 「특히 실제의 인권상황을 알 수 있는 법원의 판례나 정부의 조치 등에 관한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

반대보고서는 또 국제인권규약이 한국에서 이행되는데 가장 큰 장애요인은 「한반도의 분단」이라며 「이는 정부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인권을 탄압하는 억압적 법률을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반대보고서는 이와 함께 △국가안전기획부 경찰대공분실에 의한 고문 및 가혹행위 △안기부 기무사 등의 인신구속 △불공정한 장기구금 등의 실례를 들어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KNCC인권위와 민변은 이 반대보고서를 제출한뒤 오는 7월초 유엔인권위 이사회에 대표단도 파견할 예정이다.

인권논란 국제사회 비화/KNCC 「비교보고서」 파장
동아일보 1992-05-11 22면 (사회) 판 해설 769자

◎“고문 집회자유 대표적 왜곡” 지적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인권위원회와 민주화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지난해 7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된 정부측 인권보고서 내용을 반박하는 자체비교보고서를 작성,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키로 함에 따라 국내 인권상황에 대한 논란이 국제무대로 비화될 조짐이다.

당초 KNCC 인권위 등은 정부측 신고서에 대한 반박보고서만을 제출할 계획이었으나 국내 인권상황을 보다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항목별 비교분석이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비교보고서를 작성했다.

KNCC 등은 이 보고서를 통해 정부측이 의도적으로 생략 또는 누락시킨 인권실태를 조목조목 비교,유엔에 보고함으로써 우리 정부가 국제인권규약을 더욱 성실히 이행토록 촉구하는 계기로 삼기로 했다.

KNCC 인권위 등은 특히 비교보고서에 정부측의 국회국정감사자료,판례등 객관적인 비교자료를 제시, 「정부측이 국내 인권상황의 상당부분을 은폐 축소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KNCC 등은 정부측 인권보고서가 국내의 고문 및 가혹행위상황과 집회결사의 자유 등의 부문에서 대표적으로 실제상황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인권단체의 보고서가 유엔등 국제사회에서 「근거있다」고 인정될 경우 국내 인권상황은 「법적으로는 틀을 갖추었지만 실질적인 인권은 보장되지 않는 상황」으로 비쳐질 수밖에 없다.

결국 국제사회 일각에서 제기한 것처럼 한국이 「인권 후진국」으로 남느냐,아니면 탈피하느냐는 것은 인권단체의 보고서를 유엔인권이사회가 어떻게 받아들일느냐에 달려 있는 셈이다.<최수목>

“정부 「유엔 인권보고서」 왜곡” /KNCC·민변 주장
동아일보 1992-05-11 23면 (사회) 판 뉴스 947자

◎가혹행위 수사관수 축소/재소자 인권침해 은폐보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인권위원회와 민주화 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정부가 지난해 7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인권보고서의 상당부분이 국내 인권상황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비교 인권보고서」를 최근 작성했다.

KNCC 인권위는 이 「비교보고서」를 영문으로 번역,기왕에 작성된 「반박보고서」와 함께 유엔 인권위에 제출키로 했다.

KNCC 인권위와 민변은 이 보고서에서 「정부는 지난 86년부터 5년간 고문혐의로 기소된 경찰 등 수사담당공무원이 모두 29명이라고 밝혔으나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고문 또는 가혹행위로 고소 고발된 공무원이 지난 89년 9월부터 1년동안에만도 1백15명(53건)에 이르고 있다」며 「정부측이 고문행위자에 대한 최종 처리결과만을 유엔에 보고,결과적으로 국내 수사기관의 고문상황을 축소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KNCC 등은 또 「정부가 재야단체의 평화적 집회를 뚜렷한 이유 없이 불허하고 경찰을 동원,원천봉쇄하고 있으면서도 유엔에 제출한 정부측 인권보고서에는 집회를 신고만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소자 인권문제와 관련해서도 재야단체들은 정부의 보고서와는 달리 △재소자의 1인당 허용면적이 0.5~1.1평방m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재소자 감호시설에 영양사나 조리사가 없는 실정이고 △재소자가 징벌을 받을 경우 이에 대한 구제조치가 전혀 없어 재소자의 인권침해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재야단체들은 국가보안법의 일부조항이 개정된 이후에도 검찰이나 법원의 국가보안법 적용은 개정이전과 다를바 없으며 국가보안법 관련 구속자의 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비교인권보고서는 정부측 보고서의 23개 항목중 △신체의 자유 △평화적 집회의 자유 △국가보안법 △재소자의 인권 등 9개 항목의 내용이 특히 왜곡 또는 축소가 많았다고 분석했다.

“정부 인권보고서 조작/KNCC등 주장/고문경관수 축소”

경향신문 1992-05-12 23면 (사회) 판 뉴스 460자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KNCC) 인권위원회와 민주화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11일 정부가 지난해 7월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인권보고서에서 국내 인권상황을 상당부분 왜곡해 보고했으며 「비교인권보고서」를 작성,영문으로 옮긴 뒤 「반박보고서」와 함께 유엔에 제출키로 했다.

KNCC 등은 이 보고서에서 「정부는 지난 86년부터 5년간 고문혐의로 기소된 수사담당 공무원이 모두 29명이라고 밝혔으나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고문 또는 가혹행위로 고소·고발된 공무원은 지난 89년 9월부터 1년 동안에만도 53건에 걸쳐 1백15명으로 나와 있다」고 밝혔다.

이 단체들은 또 「정부가 재야단체의 각종 집회를 뚜렷한 이유없이 불허하고 원천봉쇄 했으면서도 유엔에는 집회를 신고만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재소자의 인권 ▲국가보안법을 통한 인권유린 부분에 대해서도 왜곡보고 했다고 주장했다.

한국인권 몇점일까/국제사회 평가받는다/13일부터 유엔 인권이사회

중앙일보 1992-07-03 22면 (사회) 판 해설 1447자

◎정부 보고서 제출 단일안건 채택/민변 반박서... 「양심수」 등 논란일듯

우리나라가 국제인권규약에 가입(90년 7월)하고 최초보고서를 제출(91년 7월) 한뒤 처음으로 국내 인권문제를 단일의제로 올리는 45차 유엔인권이사회(13~15일,스위스 제네바)를 앞두고 국내 인권문제에 관한 국제적인 평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 이사회는 우리나라가 제출한 보고서를 토대로 청문식의 집중적인 검토·토론작업을 벌일 것으로 예상돼 국내 인권문제가 국제무대에 개방되는 계기는 물론 국내 제도변화의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금까지 소극적·수세적 입장에서 다뤄오던 인권문제를 공개적인 논의대상으로 내놓고 국제사회의 다양한 견해와 비판·평가를 수용하겠다는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특히 국내외 인권단체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했던 시국사범의 처우 등에 관한 갖가지 문제가 강도 높게 제기될 것으로 예상,이에 대해 80년대 후반이래 개선된 법률·제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과정에서 각국의 편견을 불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근로자의 지위·여성차별 해소 등 비정치적 분야의 기본권 보장제도도 적극적으로 알려 논의의 폭을 넓힌다는 계획도 세웠다.

정부는 최초보고서가 27개조항 3백12개 항목에 걸쳐 각 분야의 인권보장 장치를 포괄적으로 기술하고 있어 이미 유엔에서 「성실한 보고서」라는 사전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는 민변과 KNCC가 공동으로 반박보고서를 제출,이에 대한 이사국의 판단과 평가도 주목된다.

반박보고서는 정부보고서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에서 「정부와 법원은 인권을 보장하는 조항들을 축소해석 하고 인권을 제한하는 규정들을 넓게 해석해 많은 인권침해를 정당화 해왔고 반면에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침해된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효율적인 제도는 마련돼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당국자는 「반박보고서는 어디까지나 참고자료일뿐 이를 근거로한 논쟁은 별로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인권상황에 대한 내부비판의 자유가 허용된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인식시킬 수 있어 정부입장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 인권보고서 제출때마다 수백건의 반박보고서가 제출됐고 일본 등 다른 가입국들도 대부분 반박보고서를 통한 공개비판을 경험해 왔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비교적 이른 시기인 81년 「규약」에 가입한 북한의 경우는 83년 최초보고서를 냈으나 84년 열린 인권이사회에 반박보고서가 접수되지 않아 오히려 내부비판의 자유가 없다는 이유로 「폐쇄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는 것이다.

각국 반박보고서는 미국의 경우 흑백 인종차별 문제,일본은 재일한국인 등 외국인 차별정책·내부 무역장벽,영국은 귀족에 의해 운영되는 상원구성의 문제 등을 거론했다.

어쨌든 정부는 6공들어 각종 민주화 조치로 인권상황이 급진장 했다는 자신감을 이번 회의를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하려는 입장이다.<이하경기자>

‘한국인권’ 유엔회의에 대한 엇갈린 평가(사설)

한겨레 1992-07-24 02면 (종합) 판 사설 1767자

한국정부의 인권보고서를 검토한 국제연합 인권이사회는 논의결과를 놓고 이 회의에 참석한 정부대표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변호사들이 엇갈린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보도에, 솔직히 말해서 남들 앞에서 알몸을 드러내 보인 듯한 부끄러움이 앞선다. 우리의 인권상황이 국제회의의 도마위에 올려져 논란을 빚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낮이 뜨거워지는 일 이거늘, 그 회의 결과를 놓고 외국인들로부터 칭찬을 들었으니, 야단을 맞았으니 하고 정부와 민간이 다투는 꼴이 되어버린 상황은 누구의 잘못을 떠나 참으로 국민된 자존심을 짓밟는 딱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민변 변호사들의 주장에 백번 공감하고, 또 그만한 부작용을 무릅쓰고라도 정부의 인권 시각을 따지고 나설 수밖에 없는 그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남으면 서도 그러한 낭패감만은 어쩔 수 없음을 먼저 잡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오늘의 공방은, 지난해 7월 정부가 국제연합 인권이사회에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40조에 따른 최초보고서’를 제출하고, 지난 5월 민변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회가 이 보고서에 대한 ‘반박보고서’를 제출했을 때부터 이미 예견됐던 일이었다. 더 근본적으로는, 국가보안법이나 사상전향 제도, 고문 따위의 반문명적 법과 제도와 관행의 철폐를 줄기차게 요구해온 재야 법조인들과, 분단상황과 안보논리를 내세워 이런 요구를 철저히 봉쇄해온 정부당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해묵은 인식의 거리가 빚은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다.

물론 우리의 인권상황에 대해 정부대표와 국제연합의 공식기구가 공개적인 대화를 가진 이번 회의의 의미를 폄하할 이유는 없다. 또 연 사흘에 걸쳐 18개국 위원 중 13명이 발언한 것으로 보도된 이번 회의에서, 정부대표가 주장하듯 “6공 출범 이후 한국 인권상황의 개선은 인상적”이라는 치사도 있었겠고, 민변쪽이 강조하듯 “극히 이례적이라 할 만큼 국가보안법과 전향제도를 비판”하는 논평도 있었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그동안 인권상황에 대한 우리 정부와 민간의 인식의 거리가 터무니없이 멀고, 따라서 개선을 위한 의지와 다짐 또한 크게 달랐으니 발언의 강조점이 서로 다르게 들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인권현실에 관한 한 서슴없이 민변의 입장에 서는 우리는, 이 자리에서 그동안 끝도 없이 역설해온 보안법이나 전향제도 철폐의 당위성을 되풀이할 생각은 없다. 다만 엇그제 <한겨레신문> 15면에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범국민투쟁본부’가 20년~42년째 복역하고 있는, 그야말로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장기수 30여명을 포함한 양심수 43명의 이름으로 낸 광고내용을 일깨우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민족의 통일을 가로막는 모든 법과 제도의 청산을 촉구하는 옥중 단식에 들어가면서 낸 이 피맺힌 광고는, 20년 전 7·4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됐을 때 장기수들의 부풀었던 기대는 무자비한 고문에 의한 전향공작으로 산산조각이 났고, ‘남북합의서’가 채택된 오늘도 수십년동안 그들을 묶어온 분단의 법과 제도가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 8백명을 넘는 양심수를 가뉘놓고 있다고 절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굳이 긴 설명을 덧붙이지 않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은 이제 우리의 인권 개선이 국제적으로 공인받게 됐다고 알맹이 없는 자화자찬으로 허세를 부릴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국제적으로 지적된 법제도와 인권상황의 문제점을 어떻게 하면 하루라도 빨리 해결할 것인가에 머리를 싸매는 일이기 때문이다. “간헐 자, 가둔 자, 그리고 바라보고만 있는 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분단의 세상을 끝내자”는 저들의 절규에 이제는 온몸으로 귀 기울여야 한다.

16. 1992년 2월 15일 대전교도소
비전향 장기수의 사상전향제에
대한 헌법 소원

〈1992년 2월 15일 대전교도소 비전향 장기수의 사상 전향제에 대한 헌법 소원〉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불교인권위원회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인권위원회
- ※한국기독교협의회인권위원회
-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
- ※전국연합인권위원회

- 91년 3월- **장의균**(대전교도소, 국보법위반, 8년,6년 복역)
- 행정소송형태로 문제제기. 박원순 변호사와 접견
- 91년 6월 -불이익처분에 대한 행정소송보다 총괄적인 헌법 소원을 그릇어서
- 91년 9월 -민가협, 소송비마련 전달
- 91년 10월말 -이종걸 변호사 1차 접견/ 강용주, 장의균
- 92년 2월 15일 - “대전교도소비전향장기수의 사상전향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에 관한 기자회견. 이종걸 변호사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 제출
- 2월 말- 이종걸 변호사 2차 면담/(최하중), (신인영), 김성만, 양희철
- 3월 초- 임종인 변호사 3차 면담/(김선명)

- ▷청구인 - 김선명 외 41명
▷대리인 - **박원순, 이종걸**
▷침해된 권리- 헌법 제 19조 양심의 자유권, 10조 행복추구권, 11조 평등권
▷침해된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수형자 분류 처우 규칙(1969. 5. 16 법무부령 제11호) 제2조 제1항 제16호

- ▷불이익 사례
- 1) 형기 -엄중독거로 출역금지, 감형, 가석방 대상 금지/ 왕영안(91.5.21석방 위암 3기 판명)
 - 2) 독거수용 -행형법 독거수용 2년이상 금지 그러나 비전향수는 제외
 박기만씨등 2명 정신분열 증세. 89년 전향후 석방때까지 독방 감금 홀로병사
 - 3)소내취업 -단계별 승급 불가능. 가석방, 감형대상에서 제외
 - 4)의료상의 처우
 - ①최한식(76' 광주 교도소) 76년 5월 병사. 심장병, 고혈압
 - ②대구. 68~75년 사이 **김대섭** 비롯 8명 비전향수 독방 옥사
 - ③86' 대전 **최주백** 위암 3기 10월 병사
 - ④대전 **최재필** 87년 5월 병사
 - ⑤86'대전 이선우 폐암 3기. 외진받기 위해 전향했으나 곧 사망
이들 비롯하여 옥중 사망자 67명
 - 5)기타 소내 처우

- ①운동: 70년대 후반까지 대전 비전향수. 방사선형 우리에서 한 사람씩 격리된 상태에서 5~10분 사이 운동을 끝내야
- ②서신: 5.16~80년 초반까지 직계가족과도 불허
- ③접견(소장 순열관 면담 포함): 원칙적으로 직계가족과도 금지. 소장 순열과 면담조차 불허
 - *권낙기씨(74년 광주)-보안과장에게 소내처우 개선 요구하며 면담 요청했으나 건방지다는 이유로 지하실에서 구타
 - 75년 7월 30일~8월 27일 28일간 소장접견 요구 단식 농성
- ④사책: 의학 서적, 스포츠잡지, 중고교 교과서 제외하곤 불허. 소지권수 제한. 사전류틀 제외하곤 3권 이상 넘지 못함. 73~75' 모든 책 강제 압수
- ⑤집필: 5.16 이후 필기도구 소지 금지. 92년 현재까지 금지.
 - *장의균씨(동화작가) 집필요구 모두 묵살
- ⑥사약: 중환자만 극히 부분적으로 허용.
 - *김규호씨- 15년간 가족이 차입한 약으로 지탱했으나 75년 전담반에서 일방적으로 몰수하며 강제전향 요구. 76.6 자결시도 사망
- ⑦주식, 부식: 김대수 박사(70~80' 경북대 재직, 소내 간병)에 의하면 "판에서 지급되는 주, 부식이 맞은 고사하고 그 질과 양만으로는 7년만에 자연사할 것이다."
 - :60~70년대 많은 사상범이 영양실조로 숨져
 - :이에 (최하중), (안영기), 장의균, 강용주씨등 단식 농성

▷양심의 자유(사상의 자유)

- (1) 헌법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 (2) 절대적 기본권
- (3) 침묵의 자유- 내면의 양심을 지키기 위한 자유권
- (4) 양심의 자유와 그 내용으로서의 사상의 자유(vs. 인권위원회 견해와 비교)
 - : 사상이란 개인의 정치적 신조는 물론이요 철학과 세계 역사의 발전 법칙, 사회제도의 타당성에 대한 태도 등을 모두 포함하며 이는 양심의 자유권 속에 사상의 자유권이 포함되어 함께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보호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5) 사상전향의 강요 / 양심형성, 양심수호의 자유권 침해
- (6) 수형자분류처우규칙배제조항의 위헌성

▷소제기 장기복역 양심수 명단 (송환자 30명 제외하고 12명 남다.)

- 1. 강용주 2. 고성화 3. 권양섭 4. 김성만 5. 박종린 6. 신귀영 7. 안학섭 8. 안희천 9. 양희철 10. 유원호 11. 윤수갑 12. 장의균

17. 수형자 분류처우규칙

전문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전문개정 99. 5.20 법무부령제480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행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형자를 과학적으로 분류심 사하여 합리적 인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고 수형자의 반성과 노력의 정도에 따라 처 우를 점차 완화함으로써 수형자 로 하여금 스스로 개선하고 보다 빨리 사회생활에 적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수형자의 분류와 처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이 규칙은 징역수형자 및 금고수형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작업신청을 하지 아니한 금고수형자 에 대하여는 제4장제5절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 지 아니한다.

②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수형자로서 그 형의 집행을 정지 또는 종료하고 노역장유 치를 한 경우에는 그 유치기간중 급별처우는 계속하되, 그 소득점수는 산정하지 아 니한다.

제3조 (분류심사의 유예) 신입수형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분류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1. 집행할 형기(형집행정지취서의 접수일부터 형기종료일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가 3월 미만인 경우
2. 질병 등으로 인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3. 규율위반으로 조사중이거나 징벌집행중인 경우
4. 기타 분류심사를 거부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제4조 (심사 및 처우기관) 수형자에 대한 심사 및 처우 등은 수형자를 수용하고 있는 당해 교도소의 장, 소년교도소의 장, 구치소의 장 또는 구치지소의 장(이하 "교도 소장등"이라 한다)이 한다.

제5조 (이송 및 재수용된 수형자의 급별처우)

①수형자를 이송받은 교도소장등은 당 해 수형자에 대하여 이송한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또는 구치지소(이하 "교도 소등"이라 한다)에 있어서와 동일한 급별처우를 하여야 한다.

②형집행정지의 취소로 재수용된 수형자에 대하여는 석방당시와 동일한 급별처우를 하여야 한다.

③재범으로 형집행정지가 취소되어 재수용된 수형자와 가석방의 취소 또는 실효로 재수용된 수형자에 대하여는 석방당시의 급별에 연계하여 처우하되, 누진계급을 1 계급 또는 2계급 강급한 후 재심사하 여 분류급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6조 (범수의 산정)

①범수는 징역 또는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횟수로 산정한다 . 다만,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동안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음 이 없이 그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범수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②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음이 없이 다음